



제16대 통리원장에 지성(知性) 종사

“종조님 구국도생 원력 이어 나갈 것”



지성 통리원장

불교충지충은 1월 15일 서울 역삼동 통리원에서 중앙총의회를 개최하고 제 16대 통리원장에 지성(知性) 종사를 인준했다.

지성 종사는 1993년 10월 중앙교육원 아사리 과정을 수료하고 전법관정수계를 받았다.

동년 정혜서원당 주교와 통리원 재단사무국장을 시작으로 총무부 기획국장, 재무부장, 총무부장, 총지충유지재단, 사회복지재단 이사, 통리원장 직무대행,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이사, 사감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만보사 주교로 재임해 왔다.

지성 신임 통리원장은 “선임 원장님들의 공적에 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마음이지만 과거 우리

종단은 화합속에서 놀랄만큼 성장해 왔기에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기에 사부대중 모두 원장이 되어 종조님의 구국도생의 원력을 이어 나가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서 막연하지만 종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성 신임 통리원장은 이와함께 “오늘 이 자리에 경향 각지에서 오신 내외귀빈과 스승님들, 신정회, 교도 여러분들이 늘 충고의 말씀 아끼지 않으셨으면 한다”며 “늘 법신 여래의 가호지력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린다”고 말했다.

- 윤우채 기자 (관련기사 2면)

신임 지성 통리원장 약력

- 1982. 2 통리원 근무, 시무 품수
- 1993. 12 정혜서원당 주교 통리원 재단사무국장
- 1996. 2 원의회 의원
- 1996. 6 통리원 총무부 기획국장
- 1997. 7 재무부장
- 1997. 11 총무부장, 원의회 의원, 전당건설위원
- 1998. 5 총지충유지재단 이사
- 1999. 5 총지충사회복지재단 이사
- 2000. 10 통리원장 직무대행
- 2000. 9 학교법인 종립 관음학사 이사
- 2001. 3 재무부장, 원의회 의원, 전당건설위원
- 2006. 4 사감원장
- 2010. 1 불교충지충 제 16대 통리원장



2월 10일 해오름관에서 열린 40회 졸업식

“동해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 가져요”

종립 동海中 제 40회 졸업식 거행

충지충 종립 동해중학교가 2월 10일 오전 10시 30분 교내 해오름관에서 제 40회 졸업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개식선언과 국민이례, 학교 연혁 보고, 졸업장 및 상장 수여, 학교장 회고사, 이사장 치사, 통리원장 축사, 송·답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문진성 군이 이사장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김정우, 이세호, 이민섭, 군이 각각 학교장상을 수상했다.

졸업식에는 학교법인 관음학사 의장 이사장을 비롯해 불교충지충 중앙총의회 의장 겸 각자 주교 대원 정사, 부산경남·교구장 겸 성화사 주교 지광 정사, 화음사 주교 수현 정사, 동창회 정관호, 변현, 조재현 씨, 명륜2동 김정수 동장, 명륜2동 장학회 김일현 회장, 학교운영회 이성호 위원장, 학교운영회 이영호 위원장, 학부모회 김수현 회장, 불교여민회 강근순 회장, 학부모,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의장 이사장은 치사에서 “여러분은 온 세계를 무대로 하여 개인의 역량을 펼쳐며, 산업화와 지식정보화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세대”라며 “국제화, 개방화, 변화의 시대를 맞아 지식과 창의성, 도덕

성을 기르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와함께 “성취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지충 원소 통리원장은 정 각자 대원 정사가 대독한 축사에서 “종립학교 학생으로서 부처님의 말씀을 명심하며, 행복한 삶을 구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몸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건강에 힘쓰며, 올바른 언어습관을 기르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집중하는 습관을 가져 보라”고 당부했다.

김문수 교장은 회고사를 통해 “동해인은 앞날의 지도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행동해 주시기 바라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김 교장은 또 “신의와 성실, 정직한 마음으로 근면한 사람이 되고, 열중할 수 있는 일에 일생의 시간을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1967년 개교한 충지충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의 총 졸업생 수는 모두 16,569명이다.

원정(苑淨) 종조 탄신 103주년 기념법회 봉행

“창종 정신, 가지신력(加持神力) 충만 기원”



불교충지충은 1월 29일 서울 충지사 및 전국 각 사원에서 원정 종조탄신 10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오후 2시 충지사에서 열린 기념법회에는 서울 경인교구 사원 스승과 신정회 임원진, 교도 등이 두루 참석했다. 이날 법회는

재무부장 시정 정사의 집공과 사무국장 법일 정사의 사회로 개식사, 훈장정공, 교유문 낭독, 유가삼밀, 탄신 및 행장소개, 봉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효강 종령 예하는 교유문에서 “창종주 원정 대종사님의 탄신 기념법회는 이땅에 부처님의 선법(善法)이 펼쳐지는 거룩한 법회”라며 “이 법회가 우리들 가슴 속에 크고 넓은 법열(法悅)이 충만하도록 서원드린다”고 말했다.

종령 예하는 또 “승단과 종도들의 대원과 큰 발심(發心)으로 미흡하나마 종조님의 체온이 서린 본산 도량에 종조님의 뜻을 기리는 탄신 대제를 여법하게 봉행하게 되니 참으로 다행”이라며 “성사님의 창종 정신이 영원하게 빛을 더하고 종조님의 가지신력(加持神力)이 법계에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원소 통리원장은 봉행사를 통해 “종조님께서는 밀엄국토 건설과 밀교종흥의 대원으로 정연한 교상과 사상을 갖춘 정통밀교종단인 불교충지충을 창종하

여 대승불교의 연장선상에 승승한 최상승 밀교가 있음을 만천하에 천명하셨다”고 말했다.

원소 통리원장은 이와함께 “탄신기념법회를 맞이한 오늘 종조님의 대원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종조님의 사상과 교상 연구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종조님께서 제창하신 재생의세의 정신으로 세계속에 우뚝 선 충지충을 만들기 위해 용맹정진할 것을 다짐하자”고 덧붙였다.

신정회 김인숙 서울경인지회 회장은 발언문에서 “대성사님 탄신을 맞아 큰스승으로서의 그 업적이 더욱 거룩하여 진다”며 “일체처에 자비의 광채가 더욱 빛나 종단의 교세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나가게 해달라”고 기원했다.

한편 충지충은 지난 2007년 종조탄신 100주년을 전후해 추진된 원정 종조 육필원고 발견을 비롯한 각종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또 향후 종조탄신 기념사업은 종조 관련 학술세미나 등 원정 성사의 생애와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종단은 다양한 종조 탄신관련 사업을 통해 포교활성화를 기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종단종흥의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종조법설

해탈(解脫)은 자율적(自律的)이고 자주적(自主的)인적 완성을 의미한다

해탈(解脫)이란 고(苦)의 근거인 번뇌(煩惱)로부터의 해탈로서 고의 멸각(滅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의 현실적 생애중(生涯中)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다. 이것은 여실지경(如實知見)에 의한 우주인생의 진리를 철견(徹見)하여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인격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법설집 1장 교상과 사상편

상반기 49일 불공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닌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허물을 찾아 참회하고, 조상으로부터 쌓아 온 업장을 소멸하는 지극한 불공을 해야 합니다. 모든 불자님들께서는 전생의 업장을 소멸하여 해탈을 이루시고, 항상 마음자리를 살피 청정한 부처님이 되도록 수행정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반기 49일 불공정진으로 모든 마장을 예방하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 일 시 : 충기 39년 2월 19일 ~ 4월 8일

◆ 대 상 : 충지충 교도 및 모든 불자

◆ 장 소 : 충지충 전 사원



불교충지충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3 전송 02)552-1082 //www.chongji.or.kr



진언수행의 길

49일 진호국가 불공

49일 불공은 상,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49일간 2번 실시된다. 이 49일 불공은 밀교의 호국 경전인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진호국가불공(鎮護國家佛供)이다. 상반기 49일 불공은 2월 18일에 입제하여 4월 8일 회향하고, 하반기 49일 불공은 5월 28일 시작하여 7월 15일에 마친다. 이들 49일 불공 정진의 1차 목적은 나라발전과 호국에 있다.

이 정진은 부국강병으로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불사이므로 정부를 비방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없애고, 만약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곧 바르게 되도록 회사하고 서원해야 한다.

49일 불공의 2차적 목적은 개인적 것으로, '조상을 위한 천도불공'과 '자녀 잘되기를 위한 서원 불공'이라 할 수 있다. 상반기 49일 불공이 자녀 잘되기를 서원하는 불공 기간이고 하반기 49일 불공

이 '현재 부모에 효순하고 선망부모의 해탈을 서원하는 불공기간'이다.

49일중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모두가 법신불의 당체설법이나 공덕 일으키는 법문으로 받아 들여 더욱 염송하고 회사법을 세워 49일을 잘 마쳐야 한다. 49일을 원만하게 마쳐야 회향공덕이 있게 된다.

이 진호국가불공은 가급적 저녁에 하는 것이 공덕이 크며, 매일 정중하는 불공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 불공은 반드시 북쪽으로 향하여 앉아 염송한다.

49일 진호국가 불공은 종조님께서 수호국계주경법(護國界主經法)을 근거로 하여 총기 4년(1975) 4월 22일 진호국가불사의례를 제정하여 스승과 교도가 다함께 5월 5일 월요일부터 1주간 국가안보를 위하여 정진하기로 결정한 것에서부터 유래되었다.

이달의 명상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 "만약 갖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무량 백천만억의 중생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聞) 한마음(一心)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보살은 곧 바로 그들의 음성(聲)을 관(觀)하여, 모두 해탈케 하나니라"라고 설해져 있다.

곧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그 소리를 듣고 구원을 해 주신다는 것이다. 이 말씀은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을 얻고자 기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에 대

해서 들음(聞)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관세음보살에 대한 모든 것을 듣고 그 존재의 가치를 파악하게 될 때 비로소 믿고 의지해 드려진다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믿음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렇다"는 확신과 그것을 확실하게 실행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굳은 의지에 찬 믿음이 확신은 모든 공덕의 근원이 됨과 동시에 일체의 장애를 타파하여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가장 요긴한 모체이다.

-탁연 스님

인사발령 (1월 30일자)

제석사 법상인



제석사 주교근무를 면함. 자석사 주교근무를 명함.

관성사 정법계



관성사 주교근무를 면함. 실보사 주교근무를 명함.

지인사 연동원



지인사 주교근무를 면함. 실지사 주교근무를 명함.

만보사 지성



만보사 주교근무를 면함. 지인사 주교근무를 명함.

만보사 승효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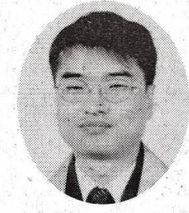
만보사 근무를 면함. 지인사 근무를 명함.

개천사 경원



개천사 주교근무를 면함. 단향사 주교근무를 명함.

운천사 인선



운천사 주교근무를 면함. 관성사 주교근무를 명함.

운천사 정계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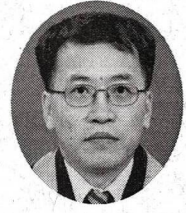
운천사 근무를 면함. 관성사 근무를 명함.

자석사 해안정



자석사 주교근무를 면함. 법황사 주교근무를 명함.

실지사 록경



실지사 주교근무를 면함. 총지사 근무를 명함.

실지사 법수연



실지사 근무를 면함. 총지사 근무를 명함.

실보사 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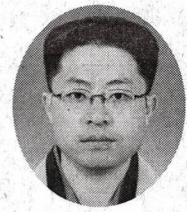
실보사 주교근무를 면함. 개천사 주교근무를 명함.

실보사 보명심



실보사 근무를 면함. 개천사 근무를 명함.

법황사 승원



법황사 주교근무를 면함. 만보사 주교근무를 명함.

법황사 묘원화



법황사 근무를 면함. 만보사 근무를 명함.

단향사 행원심



단향사 주교근무를 면함. 제석사 주교근무를 명함.

정각사 도현



정각사 근무를 면함. 운천사 주교근무를 명함.

정각사 자인행



정각사 근무를 면함. 운천사 근무를 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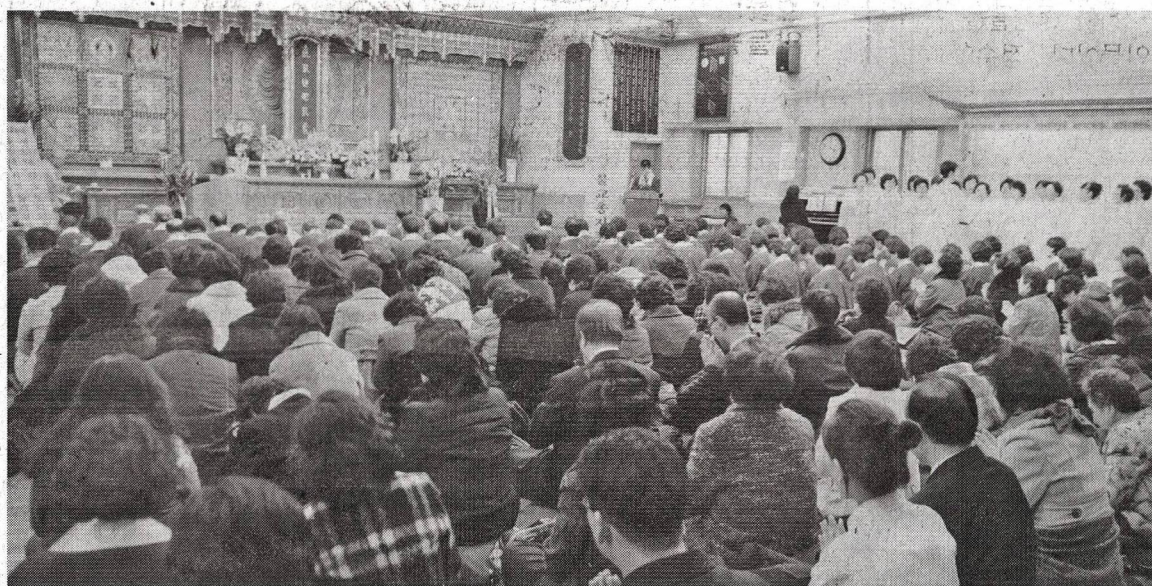
통리원 인이호



제석사 근무를 면함. 개천사 근무를 명함.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이·취임식 거행

지성 통리원장, "화합과 소통하는 종단"



▲ 1월 29일 총지사에서 거행된 통리원장 이·취임식.

불교총지종은 1월 29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총지사에서 통리원장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한화 및 한화증권, 유가증권, 종량법이 이임사, 취임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효강 종령 예하는 법어에서 "오늘, 취임하는 지성 통리원장은 통리원에서 오랜동안 근무하며 경륜을 쌓은 분이어서 그 공덕과 정진력으로 종단 중흥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6대 통리원장 지성 종사는 취임사에서 "임기동안 종단과 교화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정 종조님의 참종정신과 역대 선배스승님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모든 승지와 교도가 화합하는 종단이 되도록 하

겠다"고 밝혔다. 내빈으로 참석한 지각종 혜정 통리원장은 "종령님과 말씀을 나눌때 깊은 인연이 있음을 알았다"며 "신임 통리원장님 3년 임기를 원만히 수행하시고 함께 손잡고 한국불교와 나아가 세계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엔 중앙종의회 의장 대원 정사와 종립 동해중학교 이사장 의강 정사, 재단법인 효사랑 신수홍, 김남현 이사, 신정화 서울경인 지회 김은숙 지회장, 부산경남 지회 신인복 지회장, 충청 전라 지회 민순분 지회장 등 전국의 스승과 교도가 동석했다. 한편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을 비롯한 각계에서 축하와 메시지를 보내왔다.

알림

▶ 지난호 5면 부산 경남교구장(지광 정사) 신년사에서 파식망상필부득의 한자 巴息妄想必不得을 巴息妄想必不得으로 정정합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2010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개천사 경원 01.27 10,000	기로원 상지화 01.25 10,000	벽룡사 이희숙 01.07 10,000	시법사 환수원 01.27 10,000	총지사 이인성 01.29 30,000
개천사 무명씨 01.28 10,000	기로원 수증원 01.25 10,000	백월사 이갑진 01.25 10,000	실보사 이순옥 01.07 10,000	총지사 박계숙 01.29 20,000
개천사 무명씨 01.06 10,000	기로원 총지화 01.25 10,000	백월사 박인국 01.29 5,000	실지사 정경자 01.27 5,000	통리원 지정 01.25 20,000
개천사 윤찬 01.20 10,000	단음사 법연지 01.20 5,000	백월사 박인철 01.29 5,000	실지사 무명씨 01.28 20,000	회음사 수현 01.29 10,000
관성사 조정숙 01.05 10,000	단음사 경병순 01.29 10,000	법천사 지경 01.25 10,000	운천사 반야화 01.05 20,000	회음사 박운정 01.29 10,000
관성사 박현숙 01.26 10,000	단음사 경문지 01.29 10,000	법천사 원만원 01.25 10,000	자석사 이판도 01.14 20,000	회음사 박상운 01.29 10,000
관성사 해정 01.27 10,000	단향사 공철봉 01.06 10,000	법천사 박말조 01.25 5,000	정각사 노점호 01.06 20,000	혜정사 최영례 01.14 10,000
관성사 정법계 01.27 10,000	덕화사 하순옥 01.06 5,000	삼밀사 인법계 01.28 10,000	정각사 김문수 01.08 10,000	곽노선 01.28 50,000
관성사 황성녀 01.27 10,000	덕화사 하순옥 01.06 5,000	삼밀사 백진국 01.28 10,000	정각사 박종희 01.11 100,000	박종석 01.28 20,000
관음사 신막심 01.15 10,000	덕화사 한공심 01.28 5,000	삼밀사 최경미 01.28 10,000	정각사 구정희 01.14 20,000	안효정 01.27 20,000
기로원 대관 01.25 10,000	만보사 조덕남 01.29 10,000	삼밀사 생희태동 01.28 160,000	정각사 박수빈 01.21 10,000	이숙남 01.11 30,000
기로원 대자행 01.25 10,000	밀인사 이재갑 01.11 20,000	삼밀사 원송 01.28 10,000	정각사 신인록 01.26 1,000,000	임동수 01.05 30,000
기로원 밀공정 01.25 10,000	밀인사 묘심해 01.12 10,000	선립사 정복지 01.20 10,000	정각사 윤선자 01.28 10,000	임동수 01.22 30,000
기로원 법수원 01.25 10,000	밀인사 원당 01.12 10,000	선립사 심지장 01.20 10,000	제석사 법상인 01.27 500,000	
기로원 법정화 01.25 10,000	밀인사 이희원 01.15 10,000	선립사 황귀석 01.20 10,000	총지사 이수영 01.05 20,000	
기로원 법지원 01.25 10,000	밀인사 이재호 01.22 20,000	성화사 우담라희 01.18 50,000	총지사 최해선 01.20 20,000	
기로원 불멸심 01.25 10,000	밀인사 이해성 01.25 20,000	수인사 장영택 01.26 50,000	총지사 홍연수 01.26 10,000	
기로원 사홍화 01.25 10,000	밀인사 이연수 01.29 10,000	수인사 김봉기 01.27 10,000	총지사 최순전 01.27 20,000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풍경소리

기도의 의미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일입니다.

장용철 |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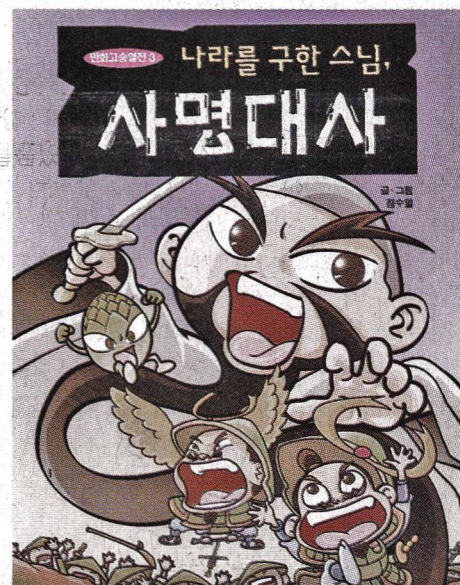
인격



양반 두 사람이 푸줏간에 들렀습니다. 첫째 양반이 말했습니다. "어이 박상길아, 고기 한 근만 줘." 둘째 양반이 말했습니다. "박 서방 나도 한 근만 주게." 고기를 받아들자 첫째 양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놀아 같은 한 근인데 내 것은 왜 이리 작으냐?" 푸줏간 주인 박상길이 말했습니다. "예, 손님 고기는 상길이라는 상놈이 자른 것이고, 이 어르신 고기는 박 서방이 잘랐으니 다를 수밖에요."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서도 햇빛이 새어나듯 이 말 한 마디에도 자신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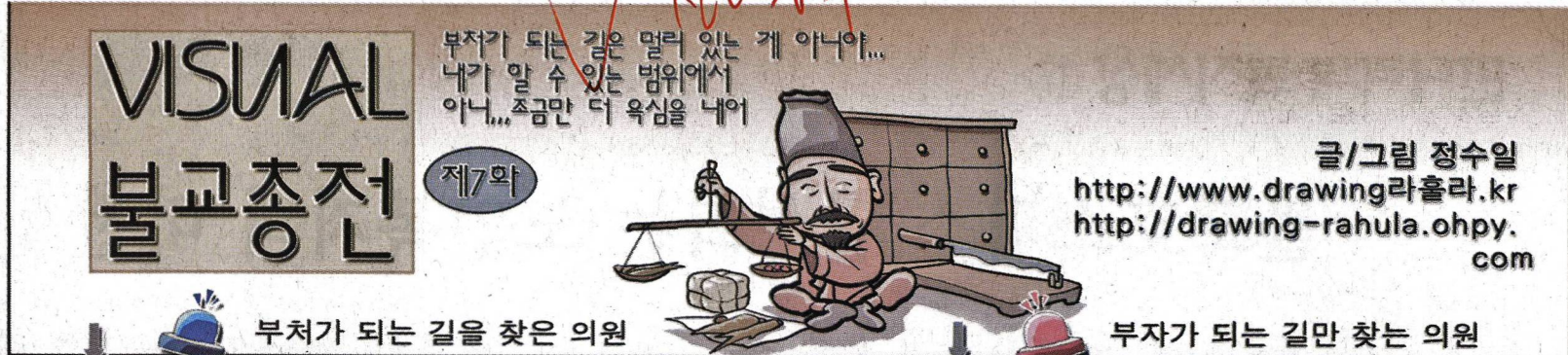
김원각 | 시인

'나라를 구한 스님, 사명대사' 출간
visual 불교총전 정수일 작가



(도서출판 운주사)를 출간했다. 사명대사는 1544년에 태어나 1610년에 열반하기까지 이 나라의 백성이나 스님으로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나라와 중생들을 지켜내고자 헌신하였던 인물이다. 정수일씨는 "해설자 역할을 하는 캐릭터 '솔이'와 함께 사명대사의 생애를 살펴봤다"며, "만화로 구성하여 아이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 작가는 1959년 전남 청산도에서 출생, 1977년 만화계에 입문하여 만화에 대한 열정으로 15년 동안 만화수업을 하였고, 1992년 『십대제자』를 필두로 '원정대성사'와 함께 하는 visual밀교 천수경, 주간만화 '저승골목', 등 많은 작품을 연재해왔다. 지금은 만화 뿐 아니라 삽화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주요작품으로 『부처님이 들려주는 옛날이야기』, 『춤추는 스님, 원효대사』, 『부처님 전생이야기』 등이 있다.

충지종보에 visual 불교총전을 연재하고 있는 정수일 작가가 만화고승열전 시리즈 세 번째 책으로, '나라를 구한 스님, 사명대사'



내용 출처: "불교총전" 교법 편 p19

졸업과 입학 축하합니다!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교 훈 창 조
협 동 경 애
교 목 보리수

충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전화 : 051-556-0281



만다라의 복지세상 17

불교호스피스 활성화는 노인복지의 비전

불교 호스피스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불교계 호스피스 교육 기관은 단 3곳에 불과하며 연간 배출되는 교육생도 고작 150여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부산 관음사, 마하보디교육원이 1년에 각각 배출하는 불자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 수는 적게는 30여명에서 많아야 50여명 정도로 한해 약 150여명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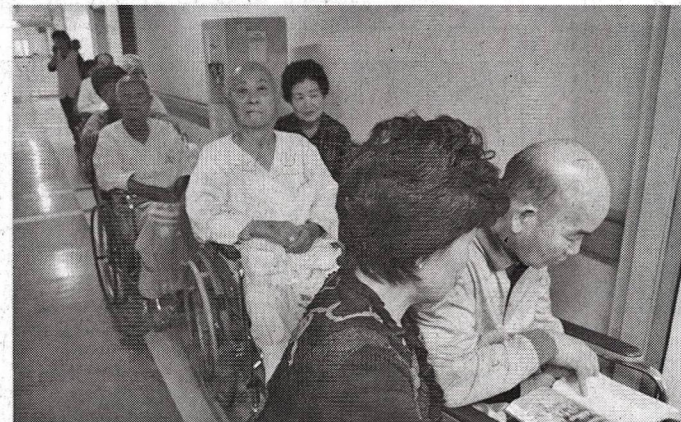
이러한 교육을 통해 배출된 호스피스 봉사자가 활동할 수 있는 기관은

독교를 배경으로 한 기관이고, 원불교 2곳, 단 한 곳인 정토마을만이 조계종 불교시설로 조사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우선 기존의 불교병원 및 시설을 중심으로 호스피스 병동을 활성화 시키고, 새로 개원한 일산 동국대학교 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을 개설하여 교육과 실습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사찰 단위로 활동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사찰은 수행의 공간이자 복지의 공간이며 지역사회의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다. 현재 불교병원의 부설로 봉

물게 될 것이

다. 절대 부족한 호스피스 병상수의 확보를 위해서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원급 소형 병원을 호스피스전문병원으로의 전환을 유도하



▲ 호스피스 의료서비스.

고, 호스피스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의료수가로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그리고 종합병원의 법당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능인선원의 경우 서울 삼성의료원의 법당을 위탁받아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호스피스 설치 운영기준이 마련될 경우 사찰이나 불교단체 등에서는 비교적 쉽게 호스피스 병동을 설치할 수 있다. 사찰에서 전통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열반당이나 임종시절 등을 확대 개편하면 스님이나 신도들이 활동할 수

있고 염불을 이끌어 주면서 임종자와 가족들이 안심입명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역할은 옛날부터 스님들이 잘 수행해 오던 기능이다.

그러나 스님들의 경우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염불이나 법문에서 그치지 않고 호스피스 환자들의 특징과 간병방법,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문 인력은 스님과 법사들을 중심으로 한 호스피스 전문가 배출이다.

특히, 이들 호스피스 전문가들에게는 말기환자의 심리, 불교의 생사관, 자비사상, 정토화 개론 등 임상환자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말기환자의 정신적, 심리적 고통 해결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원, 숭실대학교를 비롯하여 종합대학인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등에서 호스피스를 반드시 필수과목으로 정하여 이론과 함께 일정한 시간의 실습을 이수한 스님은 종단에서 부여한 자원봉사자 교육이수증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교육을 이수한 스님들은 역할을 전문성 있게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인적자원들이다.

호스피스 상담 전문가들은 가족 상담과 환자상담을 전담하면서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불교의 교리와 수행법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여러 가지 간병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의 육성도 필요하다.

-지정(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



▲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창단식.

고대 안암 병원을 비롯해 동국대일산병원, 부산의료원 등 15곳에 불과하다. 배출되는 인원도 적지만 봉사할 수 있는 병원 및 기관의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한 후 병원이나 시설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는 봉사자는 전체 배출 인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관계 기관들의 추정이다. 불교계에는 타종교계와 달리 호스피스 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호스피스 협회나 '정확한 봉사자' 규모를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반해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회장 김혜자)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 호스피스 교육생은 총 300여명이며 전국적으로 호스피스 봉사자들의 수는 1000여 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교호스피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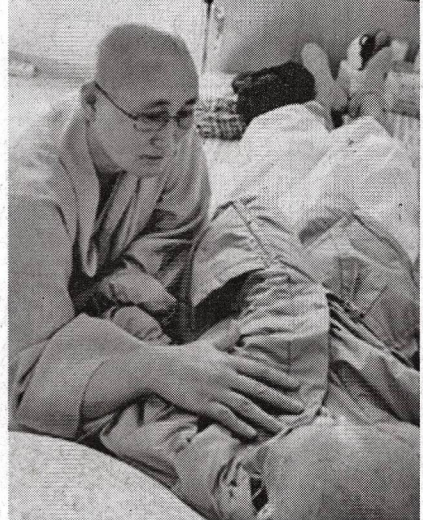
- 1) 불교호스피스 시설의 양성화
80여개의 호스피스 시설 중 74%인 60여개의 시설이 대부분 가톨릭과 기

임종환자들을 위한 가정방문형 호스피스 봉사자들의 지속적인 봉사가

불교호스피스 3곳뿐, 고사 위기 "간병활동 가능 자원봉사자 육성 필요"

이루어진다면 비록 다른 종교기관에

입원했을지라도 개종하는 경우는 드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최근 주요 분사 및 사찰에서 건립중인 노인요양시설에도 무료·유료 호스피스 병동 등을 함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양생원과 같은 임종자를 위한 임종시설을 마련하여 인간적이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 전문 인력 양성화

불교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은 호스피스 환자와 그 가족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스님과 상담가,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의 영역으로 세분화되어야 한다. 스님들은 임종을 지켜

총지동의보감

자궁근종



조선화 원장

(여성 미 한의원)

2009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지나고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가 시작되는 이맘때 즈음이면 신년 계획과 더불어 지난 1년 동안 실천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정작 개인의 건강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와 검진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는 남성들에 비해서 가정 일

한방에서 보는 자궁근종의 발생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과도한 육체적 스트레스와 외부에서 발생한 차가운 기운이 자궁 안으로 스며들어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나쁜 여혈 덩어리가 몸 밖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단단히 뭉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궁근종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발생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전 상담을 의뢰한 20대 젊은 여성은 결혼을 앞두고 풍진검사를 받다가 우연히 자궁외벽에 5cm이상의 근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개인 병원 전문의의 수술권유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는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예전에는 출산 경험이 있거나 폐경기에 가까운 중년 여성들의 전유물로만 알려졌던 자궁근종은 요즘에는 미혼의 젊은 여성들에게 여드름 생리통 만큼 흔한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궁, 여성 건강의 중요한 척도"

"치료의 핵심은 기혈 순환"

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들의 건강검진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연말연시에는 힘든 가사노동으로 심신이 지쳐있을 자신에게 감사의 표시로 건강검진을 선물하는 것은 자기애의 은근한 사랑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젊게는 20대부터 많게는 50-60대 중년 여성들에게 흔히 생길 수 있는 여성 질환 중에 자궁근종만큼 발생빈도가 높은 질환은 없을 것입니다.

암 또는 기타 다른 중대 질환에 비해서 여성들의 경각심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자칫 소홀히 대한다면 여성 건강의 중요한 척도인 자궁에 악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습니다.

자궁근종의 발생원인은 개인차가 있지만 치료의 핵심은 자궁내의 기혈 순환을 원활히 해주고 자궁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있던 여혈 덩어리와 노폐물을 풀어줌으로써 자궁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치료의 주체인 본인의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적습관' 생활태도가 치료의 효과를 상당히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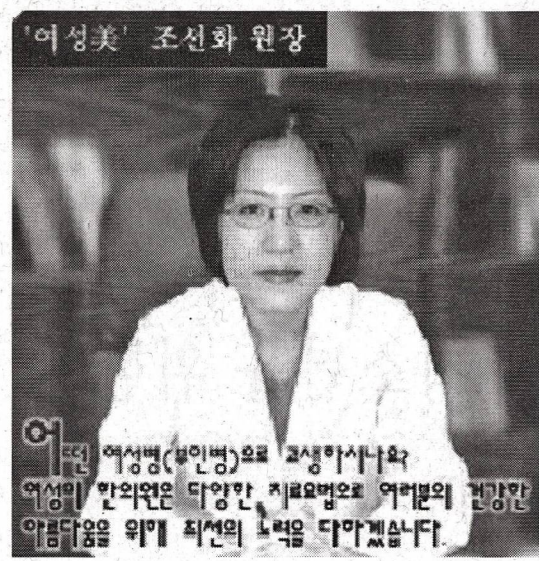
한방에서는 정신과 육체가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어서 육체질병의 상당부분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덧발의 토질이 비옥하고 좋으면 그 밭에서 나는 모든 생명체는 싱싱할 수 밖에 없다"는 진리가 한방에서 병을 다루는 근본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사제보

총지정보에서는 전국 각사원의 소식과 행사,

기타 미담과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 바

랍니다. 제보전화 : 02)552-1080~2 / bota32@hanmail.net



생혈액분석기



자동발광진단기



초음파



온열전기침



저주파치료기



작은욕기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www.women119.co.kr

전화상담 02)545-0072

Fax 02)545-2191

여성美한의원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 불임, 임신오제(임덧), 임신중독증 등...
- 산후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 기능성자궁 요법(자경단, 요실금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비만 클리닉

- 여성 : 자궁 다이어트
- 남성 : 복부 다이어트

◆ 가족 클리닉 - 보양, 수험생 등

-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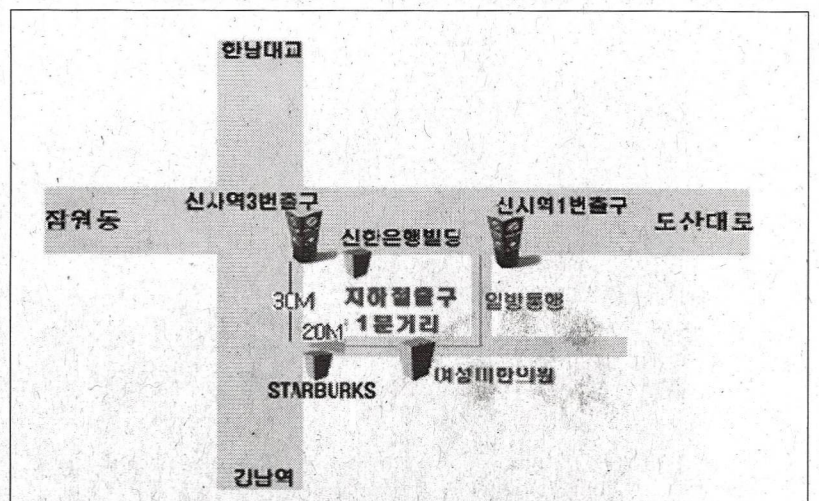
◆ 진료시간

- 평 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 주 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육아TV "전문 상담"



지상설법

탐심을 없애는 것이 가장 큰 복덕



법 공

기로스승

‘보시바라밀다’의 삼종시(三種施)중 첫번째가 재시(財施)인데 특히 우리 총지중에서는 단시법(檀施法)을 행하고 있습니다. 절량(切量)회사, 매일정시(定時), 수시(隨施)차시

(差施), 10/1 회사법이 그것이지요.

재시와 관련해 원정 종조님의 법설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종조님께서 재시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현시대는 물도시대(物道時代)라 하시고 과거 인도시대(人道時代)에는 물질보다 예의, 도덕, 인정이 우선 되었지만 현시대는 물질과 도덕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하는 물질이원(物心二元)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삶의 모습을 보면 과거 50년대-60년대 이전에 견주면 우리뿐 아니라 거의 모든 인류의 생활이 과학과 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물질적 풍요가 비교가 안 될 만큼 향상되었고 또한 향상일로에 있다지만 사람들의 가난과 고통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는 이점 그 원인과 대처 방법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하고 그 해결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종조님 말씀에 “중생은 탐심 때문에 못살고 고통 받는다. 탐심으로 인해 모든 죄를 짓

게 됨으로 탐심 없애는 것이 가장 큰 복덕이 된다.”고 하신 말씀을 깊이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하였습니다.

실로 우리 중생들은 무수속제로 지어 쌓은 업 가운데 탐업(貪業)이 가장 크기에 삼업중 탐업이 가장 먼저요 욕바라밀중에서도 보시바라밀이 첫째인 것을 보더라도 탐업이

제로 현실 가운데 역력히 나타나 보이건만 여러식은 중생은 각자 자신이 여러식은 만큼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돈이나 음식이나 기타 어떤 것이든 간 배움을 받고 보 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 필연지사이고, 더디고 빠른 차이만 있을 뿐 조만간 그 보답이 오게 마련인데도

되돌리는

것인데 실은 나의 뿌리에 주는 거름과 같아 나의 유익이 되는데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리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정답은 탐심의 장애 때문이지요. 탐심이 무명이 되어 지혜를 가리고, 눈을 가리고 마음을 닫아 배움만 받 드시 복이 되어 돌아오는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10/1 회사를 하는 교도들도 수입이 적을 때는 10/1 회사액이 크지 않아 잘하다가도 수입이 불어 10/1 회사액의 단위가 커지면 그만 망설이게 되고 결국은 법대로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1만원의 10/1 = 천원, 1백만원의 10/1 = 10만원) 안타깝게도 이는 90% 불어난 수입은 보이지 않고 탐심 때문에 10%늘어난 회사금액만 크게 보이기 때문이지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중생의 탐심이 이와 같이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10/1 회사, 10%를 은혜 값음으로 되돌리는 작복(作福)행위”

가장 큼이 분명하다 하였습니다.

내 것이라도 아껴 인식하면 탐업이 된다고 했을진대 하물며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야 말로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인과법으로 본다면 현실의 가난은 결코 우연이나 운수라거나 팔자 탓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진리로 바른 정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인과법은 털끝만 큼도 어긋남이 없는 만고불변의 철칙인바 실

탐심 때문에 눈앞의 이익만 알고 뒤에 오는 과보를 모르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래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하며 대개가 받기만 좋아하고 주기는 싫어하며 들어오는 수입은 좋고 하고 나가는 지출은 아까와 합니다. 비근한 예로 전편에 설(說)한 10/1 회사법을 보더라도 10/1 회사란 수입의 90%를 내가 차지하고 10%를 은혜 값음으로

◇ 전교의 공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부터, 강가강(恒河)의 모래알만큼 많은 강가강이 있다고 하자. 그런 강에 있는 모래는 얼마나 많겠느냐?”

“그 강가강만 하여도 한없이 많은 텐데 더구나 그 강에 있는 모래알이겠느냐?”

“수부터, 내가 지금 너에게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니 똑똑히 들어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그와 같은 강가강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문 중에서 한 구절 만이라도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준다면 그 공덕은 저 칠보로 보 시한 공덕보다 훨씬 뛰어날 것이다.

수부터, 어디서나 이 법문 중에서 한마디라도 말하고 들려 준다면 온 세상의 천신과 인간들이 그곳을 부처님의 탐과 같이 공경할 것이다. 하물며 이 법문을 모두 기억하여 읽고 연구하고 남들에게 해설해 주는 사람에게라. 그는 가장 높고 으뜸가고 희귀한 법을 성취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법문이 있는 데는 곧 부처님께서 계시고 지혜로운 부처님의 제자가 사는 곳이 될 것이다.”(金剛經)

◇ 색은 곧 공이다

부처님께서 사리뿔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뿔타, 모든 법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바라밀(波羅密)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베풀 때에도 베푸는 생각 없이 보시(布施)바라밀을 행하라. 참다운 보시는 베푸는 사람도 없고 베푸는 물건도 없고 베풀을 받는 사람도 없다. 계율로써 생각을 억제할 때에도 계를 지킨다거나 생각을 억제한다는 관념이 없이 계 지키는 바라밀을 행하라. 본질적으로는 허물을 범하고 범하지 않는 것이 없다. 남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그것을 참으면서 누가 나를 괴롭힌다는 생각 없이 참는 바라밀을 행하라. 괴롭힘에 따라 움질일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다. 노력할지라도 노력한다는 생각 없이 정진바라밀을 행하라. 노력하거나 게으르다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다. 사유(思惟)할지라도 사유한다는 생각 없이 선정(禪定)바라밀을 행하라. 선정을 닦거나 안 닦는다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다. 차물에 집착함이 없이 반야(般若)바라밀을 행하라. 모든 법의 실체와 현상은 다 잡을 수 없는 것이다.

사리뿔타, 모든 것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다고도 저렇다고도 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아 반야바라밀을 행하라. 밝은 지혜를 얻어 번뇌를 없애버리고 불퇴전(不退轉)의 자리에 오르려거든 반야바라밀을 수행해야 한다. 이 반야바라밀을 수행하면 그릇된 소견에 빠지지 않고 생각의 번거로움을 돌려 불 · 법 · 승 삼보를 믿고 평안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부모와 형제처럼 화목하게 만든다.

어떤 사람이 반야바라밀을 수행할 때에는 천신들도 이 일을 기뻐하면서 그가 음욕에서 떠나 처음부터 끝까지 청정행을 쌓도록 마음속으로 빌어 준다. 음욕은 불과 같아 몸을 태우고 더

러운 것이므로 자기와 남을 더럽힌다. 원수와 같이 틈을 노리며, 마른 풀이 불은 불길과 같아 삼시간에 모든 것을 태워 버린다. 음욕은 또 쓴 과일과 같고 날이 선 칼과 같으며, 마술사 같고 어둠 속의 환정 같으며, 겉으로만 친절한 착하는 적과 같다.

이 반야바라밀을 수행할 때에는 반야바라밀을 보지도 말고 그 이름도 생각하지 말며, 행하고 행하지 않는 차별도 두지 마라. 색(色)*은 그 본성이 공(空)하기 때문에 공은 곧 색이 되는 것이다. 원래 색의 자성은 공이다. 자

행하여 모든 번뇌를 떠나고 바른 깨달음을 얻어 한량없는 중생들을 깨우쳐 주리라고 원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공(空) · 무상(無相) · 무원(無願)의 법을 따라 모든 것에서 뛰어나고 다시는 물러서지 않는 자리를 얻어 모든 중생을 위한 참다운 복밭이 되어야 한다. 온갖 착한 일은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타나고, 그 착한일로 말미암아 세상은 평화롭고 도에는 깨달음이 있는 것이다.”(대품반야경 습응품 大品般若經 習應品)

* 색(色): 물질적인 모든 존재.

진리의 여울

◇ 무엇이 최고인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보는 것들을 흔히 ‘ 으뜸가는 것’이라 하고, 그밖에 다른 것들은 여러 가지 견해에 불들려 모두 ‘뒤떨어졌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는 논쟁을 극복할 수 없다. 그는 본 것, 배운 것, 계율이나 도덕, 사색한 것에 대해서 자신 안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서 그것만을 집착한 나머지 그 밖의 다른 것은 모두 뒤떨어진 것으로 안다. 사람이 어떤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 밖의 다른 것은 모두 하찮았다고 본다면, 그것은 대단한 장애라고 진리에 도달한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기 때문에 수행자는 본 것, 배운 것, 사색한 것, 또는 계율이나 도덕에 구애를 받아서는 안 된

다. 지혜에 대해서나 계율이나 도덕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자기를 남과 동등하거나 남보다 못하다거나 또는 뛰어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진리에 도달한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던 견해를 버리고 집착하지 않으며 지혜에 대해서도 특별히 의존하지 않는다. 그는 여러 가지 다른 견해로 분열된 사람들 틈에 있으면서 당파에 맹종하지 않고 어떤 견해일지라도 그대로 믿는 일이 없다. 그는 양극단에 대해서 여러 생존에 대해서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원하는 바가 없다. 모든 사물에 대해 단정할 만한 고집이 없게는 조금도 없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본 것, 배운 것, 또는 사색한 것에 대해서 티끌만한 망상도 갖지 않는다. 어떠한 견해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이 세상에서 망상 분별하겠는가.

그는 망령된 생각으로 분별하지 않고, 그 어느 한 가지 견해를 유달리 존중하지도 않는다. 그는 모든 가르침을 원하지도 않고 계율이나 도덕에 매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람은 피안에 이르러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다.

“눈을 뜨신 분께서는 몸소 체험하신 법, 위험과 재난의 극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바라건대 바른 길을 일러 주십시오. 계율의 규정이나 정신 안정의 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께서 대답하셨다. “눈에 보이는 것에 탐내지 말라. 저속한 이야기에서 귀를 멀리하라. 맛에 탐착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든 내 것이라고 집착하지 말라. 고통을 겪을 때라도 수행자는

결코 비탄에 빠져서는 안된다. 생존을 탐해서도 안된다. 무서운 것을 만났을 때라도 두려워 떨어서는 안된다. 음식이나 옷을 얻더라도 목히거나 쌓아 두어서는 안된다. 마음을 안정시켜라. 당황해서는 안된다. 후회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그리고 수행자는 한가하고 고요한 앓을 자리와 누울 곳에서 살아야 한다. 잠은 많이 자서도 안된다. 부지런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게으름과 거짓으로 오락과 이성간의 교제와 길치레를 버려라. 내 제자들은 아타르바 베다의 주문이나 해몽, 관상, 점을 쳐서는 안된다. 수행자는 비난을 받더라도 두려워 말고, 칭찬을 받더라도 우쭐거리지 말라. 탐욕과 인색과 성냄과 욕설을 멀리해야 한다.

수행자는 장사해서는 안다. 결코 남을 빚방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세사 탐들과 가까이 교제해서도 안된다.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 또 수행자는 거만해서는 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책략적인 언사를 써서도 안된다. 오만 불손하거나 불화를 가져올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을 피하라. 조심해서 속이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생활에 대해서나 지혜에 대해서 혹은 계율이나 도덕에 대해서 자기가 ‘남보다 뛰어났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출가 수행자는 말 많은 세속인들 한테서 욕을 먹거나 불쾌한 말을 많이 듣더라도 거친 말로 대꾸해서는 안된다. 선한 사람들은 적대적인 대담을 하지 않는다. 수행자는 이 이치를 알아 분별하고 늘 조심해서 배우라. 모든 번뇌가 소멸된 상태가 평안임을 알아라. 그러므로 여래의 가르침에 게으르지 말고 항상 따라 배우라. (經集)

치매, 중풍, 뇌졸중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모십니다

가정처럼 포근한 만다라요양원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부설 홍국사 만다라요양원은 10월 19일 개원하여 어르신들에게 가정처럼 포근한 자비와 사랑을 제공하여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 입소대상 : 장기요양등급 1, 2등급, 전국 어느곳에서나 가능함.
(장기요양등급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습니다.)

1등급: 거동하지 못하고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
2등급: 걷지 못하고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

□ 입소정원 : 6명 (선착순 입소함)

□ 본인부담금 : 1등급 : 40만원, 2등급 : 월 35만원

□ 연락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1가 150-2, 홍국사

전 화 : 063-224-4358, 016-651-8053. 담당자: 지정 청사



“사원발전위해 헌신하신 스승님께 감사”

— 스승님의 건승을 기원하며



유복근
(만보사)

저는 만보사 신정회 임원을 맡고 있는 유복근입니다.

저희가 모시고 계신 스승님을 통리원장님으로 영전 발령 내주신 데 정말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만보사는 건축한지 오래된 건물이어서, 서원당과 사택이 너무 추운곳입니다. 저희 서원당에는 노보살님들이 많으신 곳이어서 경제적으로도 마음이 움츠러지는 곳이 기도 하구요. 스승님께서 만보사에 처음 부임하신후 커다란 서원당을 관리하시면서 월초불공때 교도분

들 예닐곱 명으로 교화를 시작하셨습니다. 두 분 스승님 지도자의 자리를 굳건히 잘 지키시며 지도자의 역할을 너무 잘 하시면서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교화에 앞장 서셨습니다. 그렇게 5년이란 세월 속에 만보사를 다지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화합과 교화가 수습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스승님을 오래오래 모시고 싶은 마음은 저희들의 소원입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시며 지켜온 저희 스승님, 전수님은 건강도 많이 안좋으신데요..... 그래서 저희 모두 간절한 마음은 두 분 스승님이 서원당도 신정회 회원님들도 마음이 따뜻한 곳으로 가실 수 있기를 한마음으로 발원하고 있습니다. 종령님 정말 저희 스승님 두 분 만보사에서 너무 아끼없는 마음으로 교화 발전에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하며 헌신적인 생활로 스승님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저희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두 분 스승님의 건승을 기원하며 송구한 글 이만 마치겠습니다.

만파와 세상

“자연 세계, 영적 세계 똑같이 존중해야”

미래의 종교는 우주적 종교가 돼야 한다. 그 동안 종교는 자연세계를 부정해 왔다. 모두 절대자가 만든 것이라고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종교는 자연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똑같이 존중한다는 생각에 기반을 뒀다. 자연세계와 영적인 부분의 통합이야말로 진정한 통합이기 때문이다.

나는 불교야말로 이러한 내 생각과 부합한다고 본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현대의 과학적 요구에 상응하는 종교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교’라고 말하고 싶다..../

철학자 에릭 굿킨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내게 신(God)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약점을 드러내는 표현 또는 산물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성경에 대해서도 “명예롭지만 상당히 유치하고 원시적인 전설들의 집대성”이라며 “아무리 치밀한 해석을 덧붙이더라도 이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지적 설계론’(자연의 진화가 신의 계획에 따라 진행됐다는 주장) 주창자들은 아인슈타인도 지적설계론을 옹호한다고 강변해 왔다.

하지만 이번 편지는 그가 철저한 무신론자임을 드러내 준다고 NYT는 전했다. NYT는 “무덤에서 나온 아인슈타인이 세상 과학과 종교 사이의 문화 전쟁에 기름을 뿌렸다”고 평가했다.

유대교에 대해서도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가장 유치한 미신들이 현실화된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이어 “유대인들은 매우 좋아하지만 그들은 다른 인류와 비교해 더 낫지 않으며 선택받은 민족도 아니다”며 유대교의 선민주의 의식을 공격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1939.5.19, 프린스턴 대학에서 강연, “과학과 종교”/신 또는 유대교에 대해)

불교설화 <41>

승려요 독립운동가요 시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만해(卍海) 한용운(韓龍雲, 1879~1944)스님은 1905년 설악산 백담사로 출가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관음기도 차로 이름 높은 오세암(五歲庵)에서 보냈습니다.

스님은 이 오세암에서 불경을 공부하고 글을 쓰는 틈틈이, 관세음보살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910년, 일본이 우리나라 강제로 점령하고 국권을 찬탈하자, 망국의 울분을 참을 길 없었던 스님은 1911년 가을, 행장을 수습하여 표연히 만주로 떠났습니다.

스님은 만주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그 곳에 사는 우리 동포들을 만나 막막한 나라의 앞길을 의논하고 서로를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간도지방에 도착한 스님은 동포들을 만나 이역(異域)의 생활을 묻기도 하고 고국의 사정을 전하기도 하였으며, 그 곳의 독립지사로 협력하여 동포를 보호할 방법과 독립운동의 방향등을 의논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족투사를 양성하는 의병학교를 순방하여 학생들에게 독립정신을 깨우쳐 주고 또 격려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통화현(通化縣)에 갔을 때입니다. 그곳은 이상한 불안이 감격과 희망 속에 뒤범벅된 묘한 분위기에 싸여 있었습니다. 조밥으로 연명하면서도 밤이면 관술불을 켜 놓고 천하 대사를 논의하는 한편, 화승총을 가지고 조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국에서 온 사람에 대해 처음에는 불안으로 감시했고, 그 다음에는 의심으로, 마침내는 목숨을 빼앗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어찌된 영문인지 한용운 스님도 그 곳에서 정탐꾼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주 통화현에서도 한참을 틀어박혀 두메산골에서 자고 나오는데, 스님을 바라다 주다며 20세 전후의 한국 청년 3인이 따라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길은 차츰 산골로 접어들었고, 일행은 굴라재라는 고개를 넘게 되었습니다.

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이 우거져 대낮에도 하늘이 잘 보이지 않았고, 길이라고는 풀밭에 나무꾼들이 다니는 미로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스님의 뒤를 따라오던 청년 한 명이 ‘총을 쏘았습니다. 순간 꺾전이 선포함을 느꼈고, 연이어 두 번째 총소리가 나자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방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때 스님은 그들을 돌아보며 잘못을 호령하고자 목청껏 소리를 질렀으나, 성대가 끊어졌는지 허가 굳어졌는지 전혀 소리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는 할 말을 다했는데 말소리를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피가 맺줄기처럼 뻘뻘하고 격렬한 아픔이 전신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다가 심한 통증이 사라지면서, 지극히 편안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생(生)에서 사(死)로 넘어가는 순간이구나. 이제 죽는구나.’

이윽고 편안한 감각까지 사라지면서 스님은 완전히 혼절하여 죽음의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평소 행했던 신앙이 환체(幻體)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관음보살가피로 회생한 만해 한용운

바로 관세음보살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 아름답구나. 기쁘구나.’

앞이 눈부시게 환해지면서 질세의 미인,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여인인 삼삼옥수에 꽃을 쥐고 누워 있는 스님을 향해 미소를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총을 맞고 누워 있는 사람에게 미소를 던지다니!’

순간 스님은 달콤하면서도 분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관세음보살께서 꽃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네 생명이 경각에 있는데 어찌 이래로 가만히 있느냐?”

그 소리와 함께 정신을 차린 스님은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눈을 뜨고 주위를 살펴보니 날은 어두웠고 피는 도랑이 되어 흘렀으며, 총을 쏜 청년 가운데 한 명은 집을 조사하고 다른 한 명은 확인 살인을 위해 큰 돌을 들고 스님을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스님은 황급히 일어나 그 자리를 겨우 피하고, 피를 철철 흘리며 오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핏자국을 보고 뒤쫓을 그들이 자신들의 마을 쪽으로 가면 안심하고 천천히 쫓아올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한참을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어떻게 넘었는지도 모르게 산을 넘어 청(淸)나라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갔습니다.

그 곳의 마을사람들은 마침 촌장(村長)집에서 계(契)를 하고 있는데, 피를 흘리며 들어오는 스님을 보고 지혈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 때 총을 쏜 청년들이 쫓아왔고, 스님은 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총을 쏘려면 ‘쏘아라.’”

그들은 허전 일인지 총을 쏘지 않고 돌아갔으며, 스님은 귀 뒤와 몸에 박힌 총알을 제거하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매우 아플테니 마취를 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스님은 굳이 마다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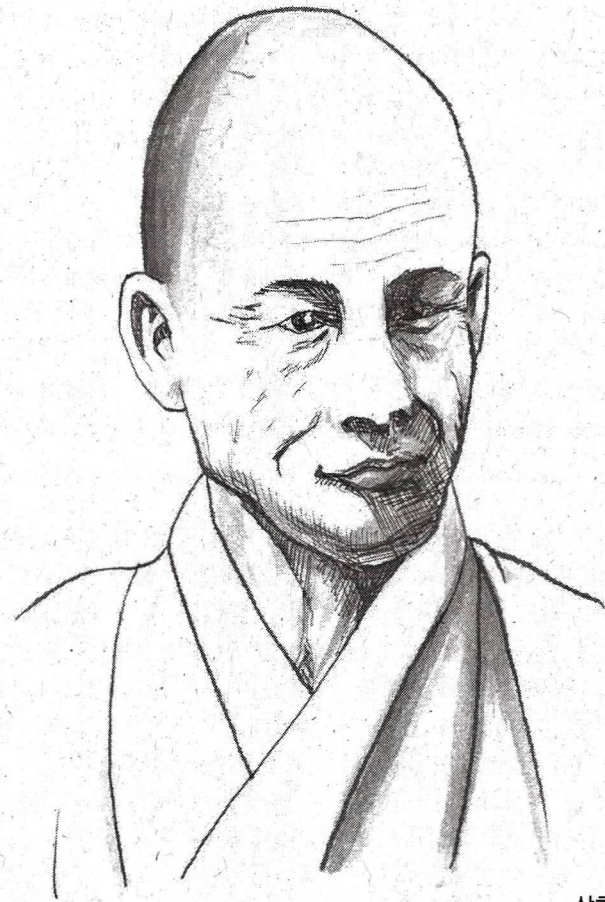
생뻐를 깎아내는 소리가 빠각빠각 나는 수술인데도 스님은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고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고 활불(活佛)이로다.”

치료를 다 마친 의사는 감탄하여 치료비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용운 스님은 평소 관세음보살을 깊이 섬겼기 때문에 절대 절명의 순간에 이르러 큰 기도를 입었던 것입니다.

이후 스님은 불교개혁운동과 독립운동을 하면서 초인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신력의 힘이 아니라, 총을 맞은 그때 관세음보살의 가피 아래에서 생사를 초월한 힘을 얻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한용운 스님의 경우처럼 평소의 신심이 위기를 구하고 업을 녹이는 근원적인 힘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 올바른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삽화: 정윤지

“평소 신심이 업을 녹이는 근원”

“불교개혁, 독립운동에 초인적 힘 발휘”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매우 아플테니 마취를 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스님은 굳이 마다하였습니다.

생뻐를 깎아내는 소리가 빠각빠각 나는 수술인데도 스님은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고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고 활불(活佛)이로다.”

치료를 다 마친 의사는 감탄하여 치료비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용운 스님은 평소 관세음보살을 깊이 섬겼기 때문에 절대 절명의 순간에 이르러 큰 기도를 입었던 것입니다.

이후 스님은 불교개혁운동과 독립운동을 하면서 초인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신력의 힘이 아니라, 총을 맞은 그때 관세음보살의 가피 아래에서 생사를 초월한 힘을 얻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한용운 스님의 경우처럼 평소의 신심이 위기를 구하고 업을 녹이는 근원적인 힘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 올바른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총지중 정각사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바라밀 공부방은 자라나는 아동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학습, 교육하는 것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이용대상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아동, 결손아동, 생활보호대상자 아동, 차상위 아동

프로그램

학습활동 : 국어, 수학, 영어, 한문
신체활동 : 요가, 태권도
문화활동 : 영화보기, 미디어영상
특별활동 : 컴퓨터, 미술수업
급식제공 : 일일1회식식제공, 간식제공
홈페이지 : happylog.naver.com/baramil.do

※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자 수시 모집

바라밀 아동들의 학습지도 및 컴퓨터 지도를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1회~2회 2시간정도 봉사해 주실 뜻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바라밀 아동들의 문화프로그램 신장을 위한 후원을 해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기업은행 094-059285-04-046
예금주 : 바라밀지역아동센터

수행의 길에서

정각사를 떠나며

자 인 행 (운천사)

문득 눈에 들어온 겨울의 꼬리가 드리워진 창밖 풍경에 이사 준비를 위해 집을 정리하던 손을 잠시 멈추었다. 3년 전 정각사에 이사 온 그 겨울이 생각난다. 불안과 두려움 가득한 시선으로 쳐다본 정각사는 낯설기만 했다. 전임 승직자와 종단과의 갈등으로 분위기는 썰렁했고 한 편으로는 팽팽한 긴장감마저 도는 사원은 이제 갓 소임을 맡아 내려온 신출내기 초보 승직자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그런 속에서도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진없이 보낸 시간들이 다시 새로운 소임을 맡아 정각사를 나가

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하나가 소중한 아슬아슬한 시간이었다.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후회도 많지만 그보다도 매일매일 얼굴 맞대고 보던 보살님들과의 헤어짐을 생각하면 정말 섭섭하고 마음이 아프다.

비록 많이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지나간 삶속에는 무수한 만남과 헤어짐이 연속되어왔다. 나름대로 헤어짐에는 이제 익숙해질때도 됐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또 다시 내 앞에 펼쳐진 헤어짐 앞에서 나는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아쉬움에 내손을 붙잡는 보살님들의 손을 놓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다.

정각사를 떠난다고는 하지만 나의 새 부임지는 정각사와 한 시간이 채 안 되는 지척인지라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해 본다. 헤어짐이라는 감정이 공간적인 간격의 격차로 섭섭함이 더하고 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만 확실하게 깨달을 뿐이다.

예년 보다 조금은 늦게 발표된 종단 승직자들의 인사이동 명단 속에 들어있는 내 이름을 보고 나는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설레임보다 정각사 보살님들과 이제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부터 핏 돌았다. 결코 길지 않은 3년이라는 시간을 정각

사에서 보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다.

때로는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에 승직자의 길에 들어선 내 자신을 원망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부처님께 감사해 하는 보살님을 보면서 마치 그 일이 내 일인 듯 같이 기뻐하면서 보낸 지난 시간들이 새삼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그동안 모자라도 한참을 모자라는 나를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정각사 보살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두가 항상 건강하고 부처님 자비광명이 함께하기를 기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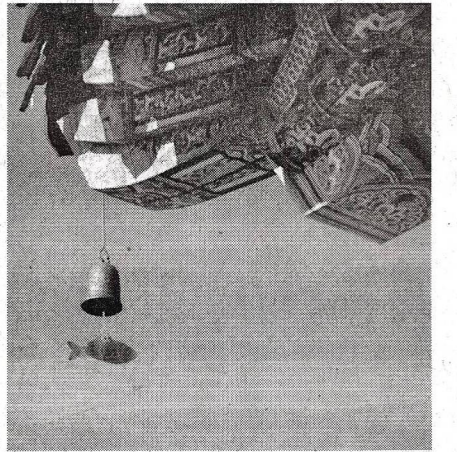
우리들의 이야기

六十而耳順 가는 길이

知天命아~~~
너는 말이 없다
셋강도 지나고
급류도 지났는데...

서리 맞은 머리카락
골깊은 잔잔한 미소만 흐른다...

내가 따라주는 한잔 술에
유년을 담겨보니
까맣네기 굵던 시절
벗도랑 개울
깨 벗고 먹 감으며 송사리 쫓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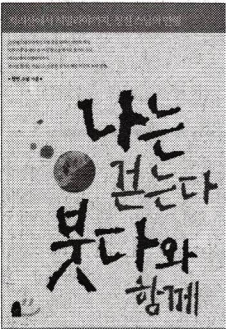


六十而耳順가는 길이
뒤라서 멀다하리
눈비비고 일어나니
코 앞에서 손짓하던걸.....
-일송정(진언행자 카페cafe.daum.net/chongjisa)

이달의 추천도서

나는 걷는다 붓다와 함께

청전 스님/ 휴(休)



티베트 망명 정부가 있는 북 인도 다람살라에서 23년째 수행중인 해동 비구 청전 스님의 불교 에세이. 이 책은 신학교에서 송광사로, 송광사에서 다시 인도 다람살라로 수행을 위해 떠돌아다닌, 30여 년 만행길 위에서 펼쳐지는 '감동적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한다.

'수행이란 바로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한없이 엄격하게 스스로를 다스리려는 수행길 위에서도 힘없는 이들을 챙기는 일을 가장 우선 순위로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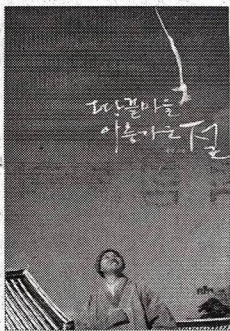
다람살라 거리에서 하루에 몇 번씩 마주치는 거지들, 매일 포항하며 만나는 거리의 강아지 한 마리로 그냥 지나치지 않고 부처님을 섬기듯 살뜰히 보듬는다.

꽃중 시절 행각하다 만난 어르신들과의 따뜻한 에피소드, 착한 삶을 물려주신 부모님을 비롯한 고향 어르신들, 꽃장화를 엮고 바퀴벌레 어린 시절의 천진난만한했던 모습 등의 에피소

드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담겨있다. 책은 30여 년 만행길에 쌓아온 인연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행복은 곁에 있는 이웃과 가슴으로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싹튼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깨닫게 한다.

망골마을 아름다운 절

금강 스님 지음/불광출판사



미항사 금강 주지스님의 불교 에세이. 금강스님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비탈자 주지 소임을 맡아 한문학당, 템플스테이, 참선수행-참사람의 향기, 과불재 등 다양한 수행과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세상과 호흡하는 산중사찰의 전형'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그러나 금강 스님이 주지로 부임할 당시만 해도 미항사는 공백한 산골의, 폐사나 다름없던 쇠락한 절이었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장점을 발견해내는 역발상을 통해 미항사를 변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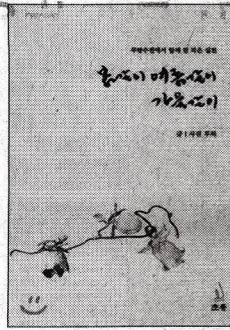
오래된 역사와 더불어 달마산을 뒤에 두고 앞으로 남해가 보이는 풍광을

가진 미항사는 금강 스님의 지휘 아래 세상과의 호흡을 시작했다. 마을 주민을 주인공으로 세워 산사음악회를 열고 세상 누가 찾아오든 마음 편히 스님과 차 한 잔 할 수 있도록 사찰 문을 활짝 열었다.

그리고 지금, 그 공백한 산골 절을 찾은 사람이 이제 1년에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미항사에 머물며 템플스테이 하고 싶다고 발걸음을 두는 사람도 매해 5천 명을 넘어서었다. 책은 이처럼 사람들과 호흡하는 미항사의 사계와 24시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리고 사찰이, 나아가 종교가 세상과 어떤 형태와 방법을 통해 소통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 책은 살아있는 답변을 제시한다.

봄같이 여름같이 가을같이

무하 지음/초롱



영주 부석사 국사암에 계신 무하스님의 맑고 순수한 이야기 법문집. 삼년 동안 삼천배 기도 정진을 하며, 주어진 환경에서 늘 변하는 시공과 일상의 경계를 수행으로 되돌리려는 삶의 자세와 끊임없는 흐름을 '관찰함으로써 스스로 깊어가는 성찰의 즐거움을 사진과 함께 잔잔하게 엮은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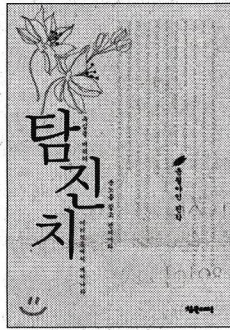
읽는 이로 하여금 안과 밖, 너와 나라는 양변을 여의고 일상을 순간 순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림하길 바라는 스님의 마음이 시처럼 담겨져 있다.

무량수전에서 사분정근, 오후 불식, 포항길, 한 잔의 차와 조그만 프락이 전부이지만 그속에서 자연의 순행과 역행, 허공의 무상함 등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서도 생사심을 일으키지 않고 겨울을 화두(話頭)처럼 기다리는 스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탐진치

진각 저 | 참글세상



'욕심을 버려라'라고 말하는 탐(貪), '본노를 참고 견디어라'라고 이르는 참, 그리고 '어리석음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치(痴). 탐·진·치는 모든 수행자의 기본이 되는 공부이다.

탐내고(貪慾), 성내고(塵埃), 어리석음(愚癡)은 청정하던 자성을 어지럽히기도 하고 자신을 망쳐 놓기도 하기에 불교에서는 우리 중생들이 버려야 하고, 멀리해야 하는 가장 큰 세 가지의 독이라고 한다.

책은 중생이 살아가는데 제일 걸림이 되는 이 세 가지 독을 제거하고, 사람답게 사는 길, 마음이 파괴되지 않고 사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생활상식

◀ 냉장고의 냉동실에 알루미늄 호일을 깔면 효율이 향상

알루미늄은 열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냉동실에 포일을 깔면 효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하면 냉장고 문을 자주 열고 닫더라도 냉동실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안심할 수 있다.

◀ 프라이팬에 알루미늄 호일을 깔면 2~3배 빨리 해동

알루미늄의 높은 열전도율은 냉동뿐만 아니라 해동에도 이용할 수 있다. 불소 수지 가공된 프라이팬에 포일을 깔고 그 위에 냉동 식품을 올려놓으면 평소보다 2~3배 빨리 해동된다.

◀ 냉동식품 재활용 용기에 반찬을 나누어 담아 냉동 보관

크로켓이나 물만두 등의 냉동 식품에 쓰이는 재활용 용기에 도시락 반찬을 나누어 담아 냉동 보관한다. 특히 콩 조림 등처럼 일정한 형태가 없는 반찬을 냉동 보관하는데 안성맞춤이다.



불교상식⑩

한용운 스님과 공약삼장

한용운 스님은 1919년 41세 때 백용성 스님과 불교계를 대표해 3.1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스님은 독립선언문의 행동강령인 [금일 오인의 차거는 정의, 인도, 존엄을 요구하는~]으로 시작되는 공약삼장을 발표했습니다. 스님은 공약삼장을 포함한 독립선언문을 그

당시 파고다 공원 근처 '태화관'에서 낭독하셨죠. 또 일본경찰에 체포돼 옥중에서 '조선독립 이유서'를 기초해 제출했는데, 이 옥중항변서는 세계정세를 통찰한 명문장으로 독립선언서 50여종 중 가장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윤유재 기자



금산인삼

동원시장점 가-42호 02. 499-9006

인삼의 고장 금산인삼의 여러 제품

수삼. 홍삼. 장뇌삼. 절편. 환. 홍삼차류. 과자류. 캔디류



사장 길경임 (벽룡사교도)
010-9960-8778

인삼의 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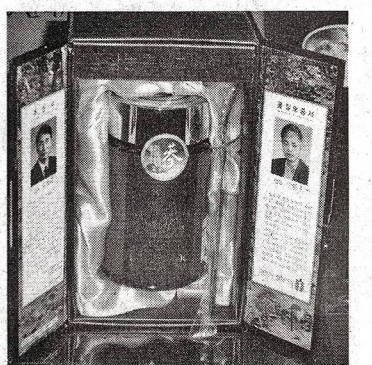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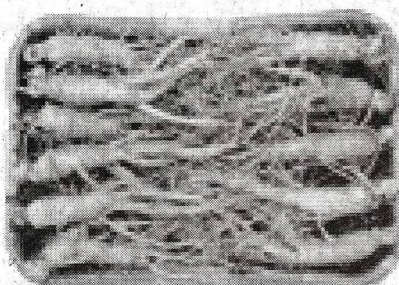


〈명의별록(名醫別錄)〉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인삼의 효능을 집약 수록.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 알콜 해독, 당뇨병, 암,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 질환, 빈혈증 등. 이 외에도 혈액 중의 섬유소원 분해제,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홍삼의 효능



혈당조절, 간보호, 발기부전증개선, 감기, 운동기능 향상. 항염, 항암, 방사선, 피부보호 및 항산화 작용. 홍삼 효과는 적응소 (adaptogen : 어댑토겐) 효과 :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주위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누병, 육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스트레스등에 증가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103-24 동원시장내 가-42호

투표소 종교시설내 설치 금지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조항에 우려

국회는 1월 25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법률 제974호)을 공포했으며, 법안은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에서 종교시설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 명시했다.

오는 6월2일 제5차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되며,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내용에는 기존에 ‘병영 안’에만 금지하던 투표소를 ‘종교시설 안’까지 확대해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제147조가 포함됐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3월19일 공직선거법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헌법〉 제20조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고 판단해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권고했었다.

하지만 2008년 7월 30일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2189개 투표소 중 종교 시설에 398개(18%)의 투표소가 설치됐고 이 가운데 교회에 설치된 투표소가 364곳(91.5%)에 이르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왔다.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조계종 대변인 원담 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29일 “이번 법 개정으로 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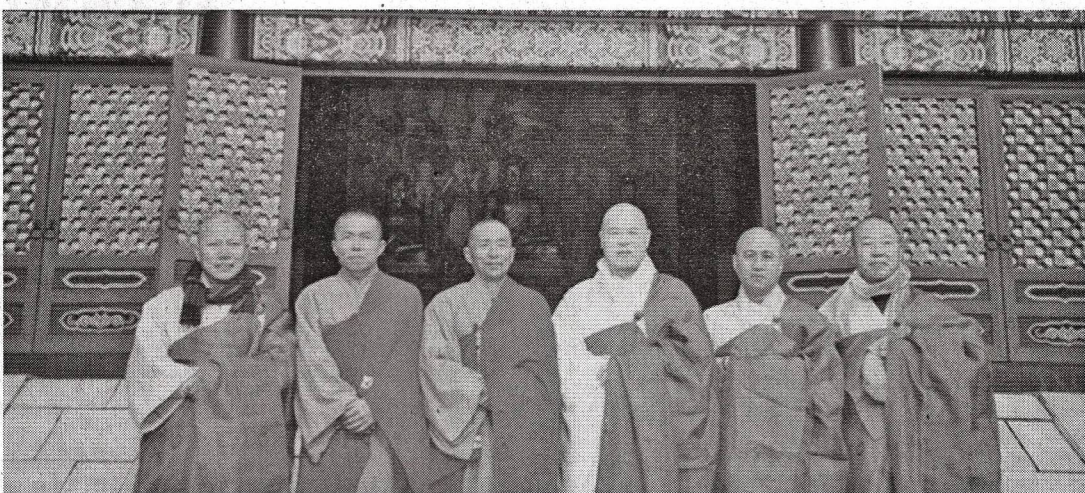
또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도 논평을 발표해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금지’ 조항이 신설된 것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은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삭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6월2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기존의 모든 종교시설투표소를 타시설로 변경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교시설 투표소는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당시 총 1만 3178곳의 투표소 중 1194곳이 종교시설 투표소였으며, 그 중 1050(87.9%)곳이 교회였다.

부처님오신날 평양에서 합동 대법회 합의

조계종 3일 방북 합의사항 공개에서 밝혀



▲ 평양 광범사 참배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조불련대표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조계종 대변인 원담 스님은 2월 3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측 불교문화재 복원보수 및 유지관리사업 ▽북관제자 1000년을 맞아 2011년 해인사 팔만대장경 천년 기념 협력사업 ▽민족공동 이익을 위한 세계불교대 회 공동참가 등 국제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공개했다. 스님은 발표에서 “이번 방북에서 조불련과 남북불교교류 및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를 했으며 사회부장 혜경 스님과 북한 리

규용 조불련 부위원장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조계종과 조불련 간 합의된 사업은 1. 금강산 신계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성지순례 등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2. 평양 시내에 불교회관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 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3. 남측 사찰과 북측 주요사찰간의 결연을 통해 교류협력을 시행한다. 4. 올해 부처님오신날 평양 광범사 또는 묘향산 보현사에서 남북화해와 단합을 위한 남

북불 교도합동법회를 병행하도록 노력한다. 5. 6·15 남북공동선언 10돌을 맞이해 금강산에서 남북불교도합동법회 도는 남·북 동시법회를 병행하도록 노력한다. 6. 남측불교단체와 조불련간에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금강산 신계사 성지 순례는 1차 방안으로 3월 중 5000명 수준의 도선사 108순례단이 순례를 계획하고 있어, 성지순례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기대까지 모으고 있다.

또한 원담 스님은 “북측에서 부처님오신날 평양에서 남북합동법회를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지금까지 민주본 등 남측 불교계에서 진행코자 했던 사업이 때문에 이견 없이 실무진행만 될 부분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원담 스님은 “방북 전날 서해안에서 포격전이 나는 등 어렵게 간 방북이었다. 방북한 대표단과 조계종 모두는 이번 방북으로 작게는 우리 불교부터 크게는 민간 교류까지 해방무드가 시작될 바라는 마음이다”며 조계종의 입장을 전했다.

원담 스님은 끝으로 “북측에 지속적인 남북 교류와 대화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온다는 ‘소통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이에 북측에서는 다시 한번 총무원장 스님이 방북해 줄 것을 조불련을 통해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총무원 총무회의에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를 단일 창구로 지정하고 향후 재방북 일정 및 조불련과 협력사업 등을 진행키로 했다.

어린이·청소년포교 성과 총람발간

새로운 포교지침서가 되길 기대



▲ 포교원장 혜충스님이 집필위원 자승스님에게 표창장을 주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충스님)은 어린이청소년포교 총람 〈어린이청소년포교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제작보고회를 1월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고 총람의 내용과 추진결과를 설명했다.

〈어린이청소년포교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은 1922년 강릉포교당 관음사내 금전유치원 설립 이래 80여 년간 전개된 어린이정

소년포교의 역사와 현황을 포교단체 법회 찬불가 미디어 등 분야별로 정리한 결과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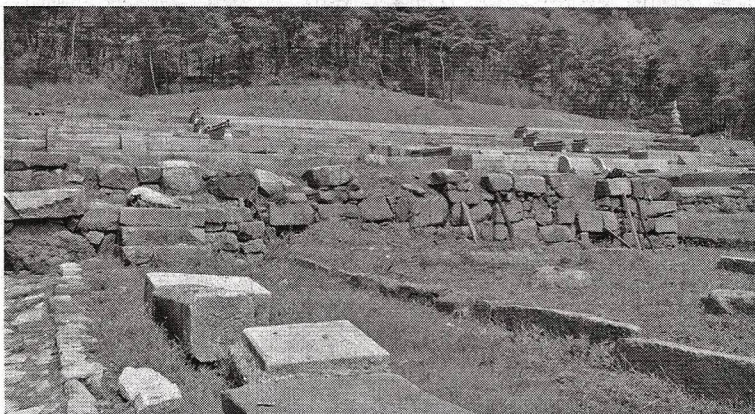
특히 2006년 12월 종단 최초로 포교원 내에 어린이청소년팀을 신설한 이후 펼쳐진 집중 3개년 사업의 부문별 성과와 과제도 수록했다. 아울러 유관단체의 활동을 비롯해 교구·교재 등의 현황과, 어린이청소년포교에 대한 기초정보도 담아 포교의 질

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포교원장 혜충스님은 발간사에서 “올해는 포교원이 시행한 집중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 지도자 양성과 어린이청소년 법회 개설 및 중심도량 지정, 다양한 교구 교재 개발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다”며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더욱 새로운 어린이청소년포교의 역사가 써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집필위원에는 중앙승가대 교육교사교육원장 자승스님, 반영규 전 사단법인 불교음악협회장, 박영동 교범사, 이종만 종은법종경소리 실장, 장현재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교육원장, 최문철 도서출판 부다가야 편집장, 황유자 동국대 불교아동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이와 함께 김석두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사무총장, 최미선 사단법인 동원 사무국장, 조한곤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사무국장이 실무위원으로 일했다.

전국 폐사지(廢寺地) 전체 조사 발표

문화재청과 2014년까지 3000여 곳 조사



▲ 경기도 양주 화암사 터.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범하)와 문화재청(청장 이견무)이 전국 폐사지 전체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2월 11일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와 전국 3000여 폐사지에 대한 현황 학술조사를 중기계획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전국의 폐사지 조사가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되기는 처음이다.

조사는 문화재청이 불교문화재연구소에 문화재보호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올해 서울·인천·경기지역 폐사지를 대상(약 600여 곳)으로 보존상태 조사, 실측과 현황도면 작성, 분포 유물 조사 등 현황 학술조사를 시행하고 사지 보존·관리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2014년까

지 연차적으로 전국의 폐사지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주요 폐사지에 대한 발굴 조사·정비와 문화재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지(寺址)는 국가지정문화재(사적) 35건,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 69건으로 총 104건이다.

앞서 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폐사지 조사를 위해 올해부터 단계별로 지표조사계획을 수립했으며 모두 55억원이 투입되는 예산을 책정하고 조사 후 관리방안과 함께 학술세미나 개최 등을 검토 중이었다. 그동안 상당수의 폐사지가 무분별한 개발과 경작으로 인해 역사적·학술적 가치규명 없이 훼손·멸실되는 등 보호가 안 되어 방치됐으나, 이번 폐사지 조사사업을 계기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연구와 체계적인 보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불청 만해백일장 연다

3월1일 동대 중강당에서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웅정)는 3월 1일 오전 10시 동국대학교 본관 중강당과 강의실에서 3·1 민족자주독립 선언 91주년 기념 제31회 전국 만해백일장’을 연다.

만해백일장은 개인 또는 10명 이상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며, 종목은 시·시조와 산문으로 초·중·고·대학 및 일반부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각 종목별 최고상인 만해대상에는 문화관광부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이 주어진다. 참가를 원하는 개인은 당일 오전 9시부터 현장 접수하며, 단체는 사전 접수하며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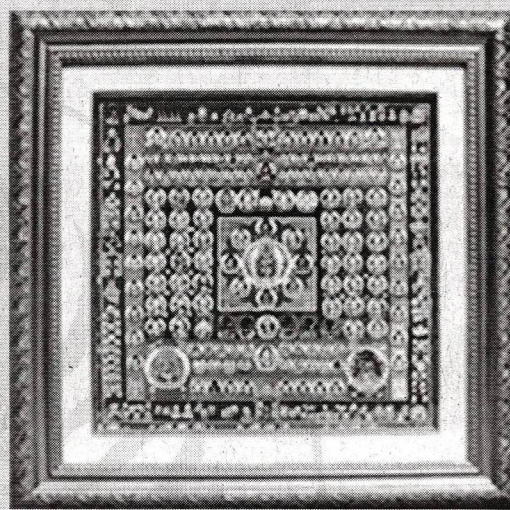
명, 종목, 부문, 성명, 연락처, 이메일, 성별 등을 한글파일 또는 엑셀 파일로 작성해 이메일(kyba@kyba.org)로 제출하면 된다. 원고작성은 당일 10:30부터 14:00까지이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문의) 02-738-1920, www.kyba.org

진리의 세계, 불보살의 세계... 만다라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그림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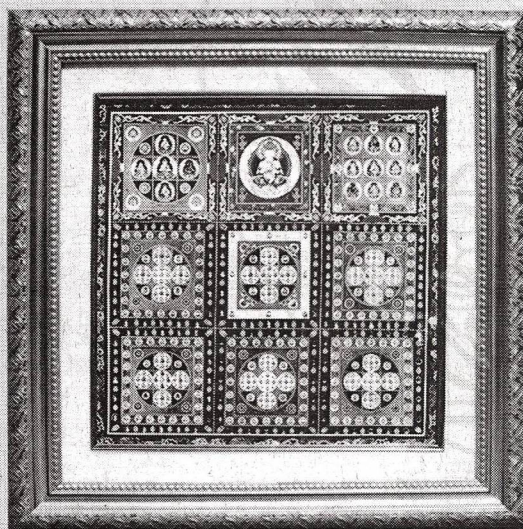
태장계 만다라

태장계 만다라는 ‘대일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대자대비야신 부처님의 마음을 모태에 비유하고 그 모태 안에서 인간의 불성을 생장시켜 나가는 활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태장계만다라는 중앙의 장대팔엽원을 중심으로 12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제전, 신등 모두 414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금강계 만다라

금강계 만다라는 ‘금강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중생의 부처의 경계,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금강계만다라는 중앙의 성인익을 중심으로 9개의 작은 만다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제전, 연경전물등 모두 1,461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 구성표

♠ 사이즈 및 가격 (태장계,금강계만다라가격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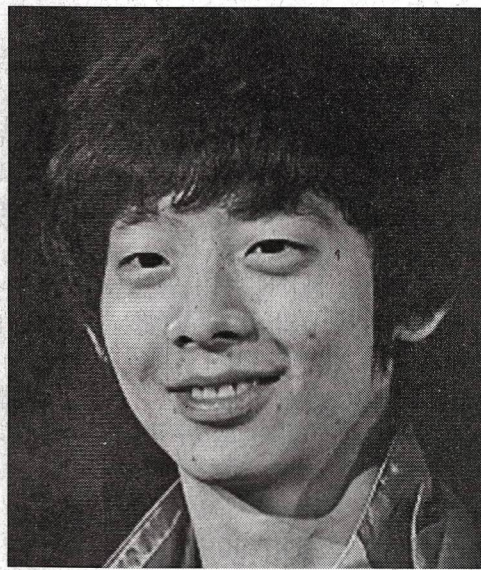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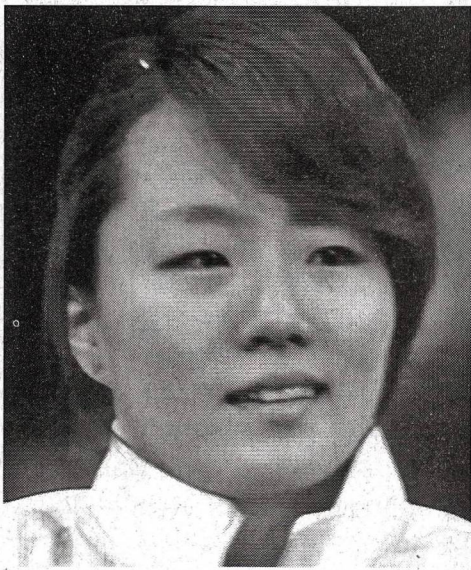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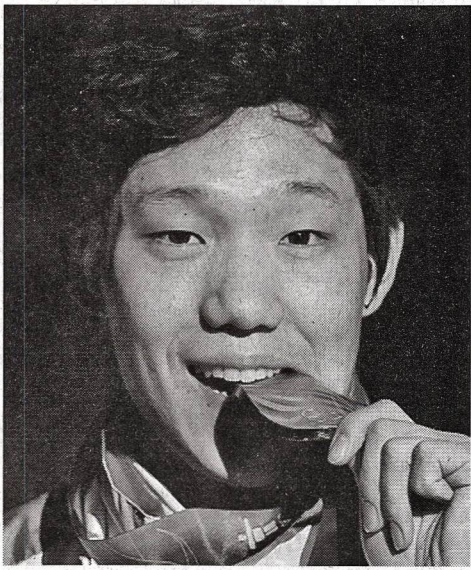
- ▶ 1000 x 1000 1개 650,000원 (액자포함)
- ▶ 750 x 750 1개 500,000원 (액자포함)
- ▶ 500 x 500 1개 300,000원 (액자포함)
- ▶ 250 x 250 1개 200,000원 (액자포함)

* 문의 : 통리원 T. 02-552-1080~3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480-047811 예)불교총지총

불교총지총

모태범 · 이상화 선수 초등때 수계 받아

쇼트트랙 이정수 선수도 불교 집안



▲ 금메달을 딴 자랑스런 선수들(왼쪽부터) 모태범, 이상화, 이정수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남·여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한 모태범, 이상화 선수가 1989년생 동갑내기 2001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하 은석초등학교를 졸업(38회)한 동기이며 독실한 불교신자라고 밝혔다. 이 두사람은 초등학교에서 같이 스케이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대표팀 생활을 함께 하며 매우 절친한 사이다. 은석초등학교는 종립 동국학원 소속 초등학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건학이념을 내 세우고 있으며 이사장은 동국대학교 이사장(정권 스님)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고 있는 불교학교다.

이상화 선수 어머니 김인순(50)씨는 “상화는 시합 때면 눈 향불을 피우고 부처님께 기도한다. 이번 시합 전에도 현지에서 향불을 피우고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빌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김인순 씨는 “상화가 금메달을 따고 자기도 믿기지 않는다고 놀라면서 아주 기뻐했다”고 전했다. 이상화 선수는 법명이 정토심(淨土心)이다. 오빠 상준(25)씨 역시 은석초등학교를 졸업한 불자로 법명이 화전이다. 모태범 선수 역시 경기 이후 가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회에 다니냐”는 질문에 “아니

다. 불교다”라고 말해 불자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과시했다. 은석초등학교 김한기 교장은 “두 사람 모두 내가 수계를 한 불자”라고 말했다. 한편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정수(22.단국대) 선수도 불자 집안이다. 부친 이도원(59)씨도 아들과 함께 자주 들렀던 북한산 노적사에서 불공을 올렸다. 이씨는 “노적사는 정수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으로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하면서 “노적사 스님이 정수에게 노적봉의 정기를 받아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 선정

201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로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이 결정됐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는 발표했다. 이번 봉축표어 선정에 대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소통

과 화합으로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나아가 부처님 탄생의 진정한 의미인 자비(慈悲)와 상생(相生)으로 모든 불자와 국민이 함께 정토세상을 만들어 가는 의미를 담아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봉축위는 지난 1월 공모를 실시해 332건(173명 응모)의 응모작을 심사하여 그중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백정아 불자가 응모한 것을 선정했다. 작년(2009년) 표어는 ‘너는 기쁨 함께 하는 세상’이었다.

태국 10만명 불·법·승 귀의

단기출가 수계의식 가져



▲ 부앗낙행사에 참석한 태국 10만 불자.

태국 방콕 담마까야 사원의 담마까야 세티야(Maha Dhammakaya Cetiya)광장에서는 2월 6일 태국 남자들이 일생에 한 번은 경험한다는 수계의식이자 단기출가인 부앗낙(Buat Nak)행사가 봉행됐다. 이날 수계식에는 1월 19일 전국 340여 ‘차찰에서’ 출가한 3만 4862명이 참석했다. 수계자 중에는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등에서 온 외국인 출가자도 150명에 달했다. 불교국가인 태국에서 수계의식은 한 소년에게 책임감을 주는 어른의 세계로 들어감을 알리는 성년의례이다. 국왕을 비롯한 태국 남자들은 대부분 인생의 한 시기에 단기 출가를 해서 ‘부앗 프라(Buat Phra)’는 승려의 생활을 하며 그 시기는 보통 그들이 결혼하기 직전이다. 이번 행사는 출가자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을 우려한 태국 정부와 태국 승단이 마련한 것이다. ‘10만 승려 집단 수계의식’

은 이번 대규모 수계의식의 공식명칭이다. 태국에서는 금년에만 대회 3만여 출가자가 참여하는 행사를 3차례에 봉행한다. 이날 행사에 든 비용은 태국 돈으로 7억5000만 바트(bath), 한화로 환산하면 약 263억원이다. 출가의식은 빨리 경전을 암송하며 탑 주위를 세 번 도는 순례의식으로 시작됐다. 새벽이 어둡기 시작하자 전인 이른 시각임에도 세티야 광장에는 출가 의식을 보기 위해 모인 환호를 담은 출가자의 가족과 불자들로 가득 찼다. 이날 행사에는 10~60대의 다양한 연령대가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이번 행사가 단순한 통과의례가 아닌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가정과 사회, 국가의 안녕을 비는 자리로 마련됐기 때문이다. 수계의식에 참가한 일련 스님(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수만 명의 수행자

가 49일간 불법에 귀의하고 나라의 안정과 행복을 기원하는 것은 큰 공덕”이라며 “오늘 계를 받은 수행자들의 공덕으로 태국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계를 마친 3만5천여 명의 사미스님들은 다시 출가 사찰로 돌아가 해제일인 3월 8일까지 오후불식, 탁발수행 등 실제 스님들과 똑같이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10만 출가의식’을 이끈 담마까야사원 부주지 프라바바나(Phrabhavanaviriyakhun) 스님은 “태국불교의 포교활동이 침체 상태다. 대규모 출가행사는 3년 전부터 기획했다. 태국 정부의 도움을 받았지만 전국 각 사원의 스님들이 주축이 돼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현재 태국의 출가자는 감소 추세이고, 이들을 가르칠 법사스님들도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 출가자와 이들을 가르치는 법사스님을 함께 배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10만 명 출가자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큰 사원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담마까야 사원만의 명상 수행과 탁발수행이 있기에 가능했다. 프라바바나 스님은 “2년 전 1000명의 스님들과 탁발행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50만 명의 스님이 참여하는 행사를 할 수 있었다. 여기서 힘을 얻어 10만 명 출가라는 목표를 세우게 됐다”며 “이 같은 결집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원에서 가르치는 명상수행 덕분”이라고 말했다.

사법연수원생 봉은사에서 1080배

‘다르마 법우회’ 23명 정진(精進)

지난 5일, 6일 양일에 걸쳐 봉은사에서 사법연수원 ‘다르마 법우회’ 41기 신입 연수생을 위한 템플스테이가 있었다.



▲ 1080배를 수행중인 다르마법우회 불자들

사법연수원 다르마 법우회 39기, 40기 회원뿐 아니라 오는 3월 입소하는 41기 예비 회원 7명 등 총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템플스테이는 다도체련, 발우공양, 탑돌이, 예불, 스님과의 대화, 1080배, 참선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8시 30분부터 시작된 1080배는 자정이 지나 끝났다. 이 행사에 동참한 최권(31.41기)씨는 1080배를 마친 후 “몸이 아프지만말로 표현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고, 합격의 기쁨을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은 “법조인은 끊임없는 판단을 하게 되는 만큼 마음을 비우고 편견을 버려 세상을 올바르게 보는 눈을 가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법연수원내 기독교와 천주교 모임은 매년 회원이 150여명 정도다.

불교모임인 다르마 법우회는 30명 내외였으나, 불자 법조인들이 포교에 힘써 사법연수원 40기 다르마 법우회는 회원수가 70여명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양경승 부장관사(지도교수), 권광중 전 사법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순필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
가 공동 집필 ...

밀교사상사개론

국판 / 정가 15,000원 / 불교출판중심본부

육자대명왕전설(육마니반매종)의 유래와 공덕을 철학
경전으로 본 것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설대승장엄보왕경

번역국판 / 정가 7,000원 / 불교출판중심본부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의 불교의 역할에 대하여 서술하
였으며, 불교의 특징과 구분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불
교에 대한 개략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불교, 교양으로 읽다

국판 / 정가 15,000원 / 민족사

한국불교의식의 대명사인 천수경에서 왜 처음과 끝이
진언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 비법을 밝히고 있으며
본 심요점을 통해 누구든 성불할 수 있는 원리를 제시
하고 있다.

어떻게 성불할 것인가

국판 / 정가 8,000원 / 운주사

기획특집 16대 통리원장에게 듣는다

“모두가 원장이 되어 종조님의 구국도생 원력을 계승합시다”



▶ 제16대 지성 통리원장

인사발령 (1월 30일자)

“16대 집행부 선임”

지인사 지성 제16대 통리원장에 명함(1월 29일자) 	법천사 시정 재무부장에 명함. 원의회의원에 명함. 전당건설 위원에 명함. 	화음사 수현 교정부장에 명함. 원의회의원에 명함. 전당건설 위원에 명함. 
관성사 인선 총무부장에 명함. 원의회의원에 명함. 전당건설 위원에 명함. 	개천사 우인 사회부장에 명함. 원의회의원에 명함. 전당건설 위원에 명함. 	벽룡사 법일 통리원 사무국장을 명함. 

▶ 통리원장 선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각계에서 축하 인사를 받고는 일 많이 해 달라는 뜻으로 새겨 들었습니다. 맡은 바 책임과 산적인 일들로 조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선임 원장님들과 스승님들의 공적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우리 종단은 화합속에서 놀랄만큼 성장해 왔기에 격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혼자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사부대중 모두 원장이 되어 종조님의 구국도생의 원력을 이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취임식에서 말씀드린대로 막연하지만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종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 임기내 종단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 시대에 맞는 불교와 종단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며 이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선 현안 문제 해결부터 나설 계획입니다. 시대와 상황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종단 법규와 조항, 관행 등을 공의를 모아 개선하고 수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예를 들면 승직자 복식을 통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확실한 규정이 없어서 개량복이나 각양각색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의 신축과 보수와 관련한 건축법규 등도 불필요한 조항이 많습니다. 이런 점들은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삭제하겠습니다.

▶ 역점을 두고 추진할 중무행정 사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와 16대 집행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공약보다 기본이 되는 일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집행부를 위한 초석을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창종 40년 되어가는데 우리 종단이 확실히 뿌리 내리지 못하고 부유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종단 교세발전을 위해서는 포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규 교도 유입은 줄고, 교도고령화는 가속되고 가족들은 대를 이어 제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종단 사상 획기적이라 할 수 있는 불상을 봉안하고, 만다라 불사, 사원 신축 등을 도모해왔으나 교세 확장의 면에서 큰 진전이 없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화발전과 포교를 위해서는 이같은 제원인들을 분석 연구하여 이를 토대로 면밀하고 다각적인 방법이 강구돼야 합니다.

각 교구별 주교가 후원이 되는 불교대학 설립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총기종보

나 위드다라마 잡지 등을 통한 문서포교에도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교도를 위한 복지시설 건립도 재차 시도할 계획입니다. 간혹 평생 교도로 수행해 오신 상수 보살님들이 말년에 의탁할 곳이 마땅치 않아 다른 종교로 개종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때가 있습니다. 우리 종단에도 그동안 종단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셨던 많은 노보살님들을 위한 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초기 단계는 우선 생활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몸이 자유로운 몇 분이 몸이 불편한 분을 공동 보호, 상호하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착되면 종단 내 이용 가능한 부지나 시설을 파악해 시설을 건립하고, 유료양로원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시대에 맞는 종단 역할 찾을 것” “교화 발전과 포교 역점 둘 것”

▶ 종단과 교도를 간 의사소통 기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사소통을 위해선 별도 기구보다는 기존의 신정회를 적극 활용했으면 합니다. 우선 전국 각 교구별 지회와 사원에서 스승과 교도간 원활한 의견수렴을 하는 게 긴요할 것입니다. 그 후 통리원 집행부 부장단이나 원장을 찾으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창구를 일원화 해야 효율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취임식때 밝혔듯이 교도분들 말씀을 많이 듣겠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교도 여러분들께서 개별적으로 방문 면담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종단 교화 발전을 위해서는 역량이 있는 도제양성이 긴요합니다. 도제 양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지요.

종단 도제양성비 수혜자들을 적극 활용하여 교화발전과 참여하도록 하고, 학자금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포교활동비를 주어 해당 단체안에서 청년회나 학생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 어린이청소년 자성학교 활성화와 교화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창종 초기에는 사원에서 제일 좋은 공간에 자성학교를 마련해 줄 정도로 지원도 많았고 그만큼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공간이 대개 창고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는 교육과 관련한 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교육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종단 차원의 지원도 수반해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개최되는 수련회의 경우,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구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도자기 빚기 행사나 스승의 하루일과 체험 같은 것도 괜찮겠습니다.

▶ 평소 지침으로 삼는 경구(經句)나 신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지 바른 노력인 사정근(四正勤)입니다. 사정근은 도를 이루게 하는 삼십칠도품 가운데 하나로 네 가지 바른 노력으로 태만한 마음과 장애를 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악을 방지하기 위해 부지런히 감관을 단속하는 것입니다(未生惡令不生). 두 번째는 이미 생긴 악을 끊기 위해 노력하는 것(已生惡令滅)입니다.

셋째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선을 나타내기 위해 힘쓰는 것(未生善令生)이고, 넷째는 이미 나타난 선을 증장시키도록 노력하는 것(已生善令增長)입니다. 수행자라면 가져야 할 경구라고 할까요, 제가 승복을 입는 순간부터 결심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조라고 한다면 “잘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금전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에게 피해 안주고 바르게 살아야 나와 주위가 편안해 지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속에서 바르게 사는 일이 참으로 어렵지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 끝으로 종단과 교도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과 같이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에는 정신적인 필요가 미흡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절에 와서 불공을 하고 법문도 듣고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을 이루고자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사원도 그 나름의 규범과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종단의 교도라면 종단의 교리와 법규를 수용해야 합니다. 승직자는 승직의 역할이 있고, 교도는 교도 역할이 있습니다. 공동체 사회나 사원에서나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질서가 유지되고 조화롭게 될 때 아름다운 사회와 사원이 구현될 것입니다. 종단의 전 승직자와 교도들이 힘을 모아 아름답고 행복한 사원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대담: 윤우재 기자

햇보리자 총지종108염주

천은사 보리자(7mm)를 사용하여 2009년도 햇 보리수 108염주를 제작하여 보급합니다.

보리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천은사 보리자이고, 모주는 패다라에 육합상을 조각했으며, 간주로는 천연 백수정 10개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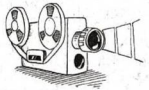
패다라란 인도에서 종이 대신 글자를 새기는 데 쓰인 나뭇잎을 말하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나뭇잎에 새겨두었으므로 바로 경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 열매로 모주를 만들었기에 부처님 말씀을 늘 수지한 경전과도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패다라 모주 108염주로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패다라(貝多羅) : 經은 梵語로 수다라(sutra)라고 하는데 바로 번역하면 선. 관(線. 貫)이 된다. 이것은 곧 부처님의 말씀을 패다라 나무 잎에 써서 끈으로 엮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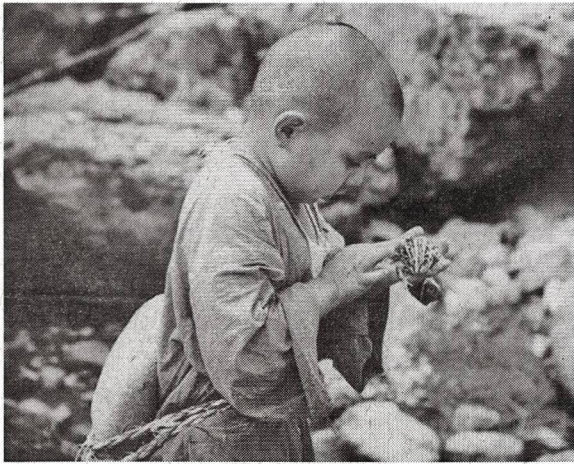


구입문의 : 전화 02. 552-1080-3 통리원 또는 총지종 각 사원 주교(총지종 교도에 한하여 1개당 ₩40,000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불교보기 ⑨/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인간의 조건, 고통과 해탈



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모티브나 소재만 불교에서 따왔을 뿐 깊은 사상은 불교와 꽤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처한 조건을 '고'라고 하지만 '해탈'이라는 출구 또한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는 출구가 없는 절망에 갇힌 인간의 상황을 암울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지프스의 사상에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

다. 인간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꽤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까뮈나 사르트르가 속한 실존주의 사상가들입니다. 까뮈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시지프스의 신화>에서 인간의 처지에 대한 그의 생각을 꽤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시지프스의 신화>는 그리스신화에 까뮈의 사상이 가미된 평론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시지프스는 신들을 무시했다는 죄목으로 무거운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바위는 산 정상까지 올라가면 바로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시지프스는 다시 바위를 밀어 올려야 하고요. 무의미한 노력이 그에게 주어진 형벌이었습니다. 까뮈는 시지프스가 받고 있는 이 형벌을 우리 인간이 처한 현실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존 조건이 바로 이런 식의 무의미한, 허무한 고통이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인간의 상황을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에 장황하게 실존주의에 대해서 늘어놓느냐면 이번엔 다들 영화가 '실존주의의 비판론'을 주요 사상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상수 감독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작가주의 감독인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은 얼핏 보면 불교영화처럼 보입니다. 불교에서 소재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스님이고, 배경은 사찰입니다. 또한 대비식이나 반야심경 등 불교적 소재가 영화 전편을 채우고 있습니다. 또한 첫 장면인 <봄>에서는, 어린 동자승이 개구리와 물고기에 돌을 끈으로 매달아놓는데 이를 본 노승이 장난삼아 하는 행동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그렇게 하다가 업을 받게 된다고 타이릅니다. 그래서 불교의 업 사상에 바탕한 영화라고 기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모티브나 소재만 불교에서 따왔을 뿐 깊은 사상은 불교와 꽤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처한 조건을 '고'라고 하지만 '해탈'이라는 출구 또한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는 출구가 없는 절망에 갇힌 인간의 상황을 암울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지프스의 사상에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

다. 김기덕 감독의 아홉 번째 작품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은 모두 5개의 챕터로 구분돼 있으며 영화는 사계절을 인간의 성장과정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첫 시작을 의미하는 <봄>은 동자승이 물고개 개구리에게 돌을 묶으며 노는 장면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동자승은 죄의식 없이 악행을 저지릅니다. 인간의 원래 의식에는 연민이 나 다른 생명에 대한 배려 같은 건 애시당초 없는 모양입니다. 이런 의식 때문인지 아이의 운명은 그리 평탄치가 못합니다.

이어지는 <여름>에서 어린 동자승은 열기왕성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청년이 된 주인공 앞에 어느 날 17세 소녀가 찾아옵니다. 소녀는 요양 차 절에 오고 청춘 남녀는 밀폐된 공간에서 사랑에 빠집니다. 젊은 스님과 여고생의 사랑에 대해서 사실 젊음의 한 특징으로, 여름의 녹음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부처님께서도 이 자체를 나쁘게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착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꽃처럼 그 한때를 즐기고 마음을 두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는 데 젊은 스님은 그

최인이 꽤 돌아온 제자에게 노스님은 나무 바닥에 반야심경을 새기게 했습니다. 반야심경을 파면서 아직도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분노를 가라앉히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진정시킨 제자는 그를 불잡으려 온 경찰과 함께 감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배경은 이제 겨울이 됐습니다. 하얀 눈이 덮인 겨울은 모든 걸 덮어버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지요. 감옥에서 죄를 갚고 돌아온 남자는 까뮈의 시지프스 신화에서처럼 무거운 돌 대신 타이어를 매달고 산을 오릅니다. 이 행동에 대해서 새로운 탄생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개구리나 물고기에 돌을 매달았던 본성을 개조하고 또 집착을 끊기 위해서, 그래서 나쁜 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한 작업으로 이해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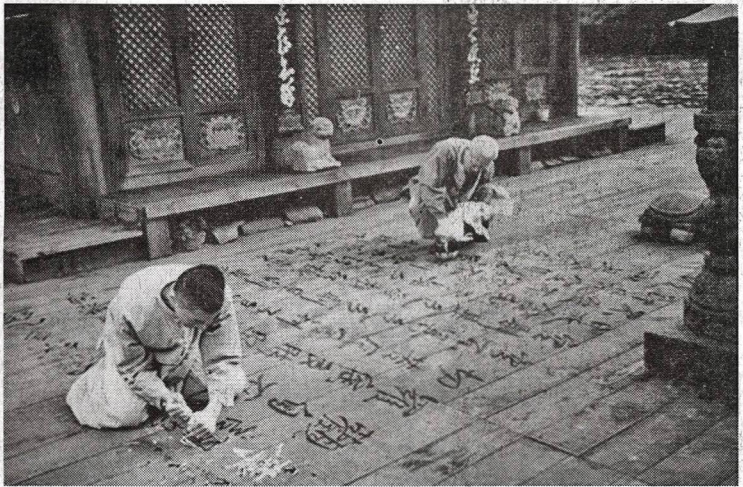
그리고

사실 겨울 장면은 감독 자신이 직접 촬영해서 꽤 긴 시간 공을 들여서 촬영했습니다. 불운한 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꽤 진지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영화는 소재도 그렇지만 불교영화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겨울이 마지막 장면이라면 누구도 이 영화가 불교영화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 남자가 업을 씻고 오랜 고행을 통해 영혼의 자유를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화는 여기서 끝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봄>이라는 장면을 하나 더 준비해서 그의 사상이 불교적이지 않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행했지만 그래서 나아졌으리라고 기대했는데 다음 봄에 새로운 한 동자는 또 개구리와 물고기에 돌을 매달았다. 그 동자의 운명 또한 앞의 남자의 전철을 밟으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나뭇잎이 떨어지고 겨울이면 만물은 자취를 감추지만 다시 봄이 오면 또 꽃이 피는 것처럼 인간은 아무리 발바닥 쳐도 이 비극적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논



리인 것 같습니다. 시지프스가 열심히 바위를 산 정상에 밀어 올리지만 바위는 정상에서 다시 굴러 떨어지고 다시 그 노동을 반복해야 하는 것처럼 인간의 처지라는 게 자신이 갖고 있는 악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참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인간의 조건을 어떻게 불까요? 영화에서처럼 절망적으로 바라볼까요? 불교에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제행무상'이고 또한 '제법무아'이므로 물질이 공한 줄을 알아서 집착하지 않고, 또 나라는 허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자유로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을 바탕으로 한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지요.

그러니까 불교는 인간의 조건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과 마찬가지로 현실을 어둡게 본 데는 동일하지만 불교는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이 들어오는 출구가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은주(자유기고가)

세상사는 이야기

우리 선수들 파이팅!

지금도 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다. 요즘은 내 일과는 새벽부터 텔레비전 보는 일로 시작된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중계를 보기 위해 아주 불박이가 되어버렸다. 세계 여러 나라 선수들이 자기 나라의 명예를 걸고 대표 선수로 출전하여 펼치는 경기는 그 어떤 드라마 보다 감동적이고 짜릿한 전율이 온 몸에 퍼져 흥분을 감출 수 없다.

이번 동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활약상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동계 올림픽에서는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금메달 은메달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날로 발전하는 우리나라의 자력은 여기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을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고비를 어떻게 이겨 냈을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놓고 싶은 것과 다른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오로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 왔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으면 체력 조건부터 모든 것이 우리보다 잘 갖춰진 그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앞장 설 수 있었을까? 가까운 곳에 있으면 달려 가서 꼭 안아 주고 싶다. 1위를 한 후 너무 감격해서 울먹이는 모습도 사랑스럽고 태극기를 몸에 감고 춤을 추는 모습도 귀엽고 예쁘다. 경기에 승리하고 시상대 위에 선 우리 선수들의 모습은 더 없이 능률하고 자랑스러웠다.

그들이 있어 우리들은 행복했고 우리나라의 앞날도 밝게 펼쳐질 것이다. 리치몬드 올림픽경기장은 대한민국의 꿈의 경기장이 되었다. 세계 각국의 언론들은 연일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소식을 전하고 어디를 가든 환영 받고 먼저 인사를 한다고 한다. 일본은 훈련방법을 우리나라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또 서양의 여러 나라 선수들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 선수들이 가장 무섭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500m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에서 남, 녀 동반 우승을 했으니 그들이 약간의 엄살 섞인 반응을 할만도 하다. 500m는 육상으로 따지면 100m 우승한 것과 같다고 한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선수가 남, 녀 모두 우리나라 선수라고 하니 마음껏 자랑해도 넘치지 않을 것이다.

한편 5000m에서 우리나라에 첫번째 은메달을 안겨 주어 우리 선수단을 기쁘게 해주었던 선수도 잊을 수 없다. 기대를 걸지 않았던 어린 선수가 5000m 장거리에서 금메달보다 더 귀한 은메달을 획득하여 우리나라 선수단 전체의 사기를 높여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효자 종목인 쇼트트랙 경기에서도 첫 번째 금메달이 나와서 우리들을 즐겁게 해 주었다. 금, 은, 동메달을 다 딸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게도 결승선을 조금 남기고 한 선수가 무리하게 경기를 하다가 부딪쳐서 그만 은메달과 동메달을 놓쳐 뒤따르던 미국선수가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하고 무슨 깊은 인연이 있어서인지 '안톤 오노'가 이번에도 은메달을 가져갔다. 이 일은 과욕이 부른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 된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경쟁하는 사이 일지라도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격려하는 선수들이 되어야겠다. 또, 한 번의 실수는 따뜻하게 감싸 주는 것이 지금까지 같이 노력한 동료에 대한 진정한 배려가 아닐까?

앞으로 경기가 많이 남았는데 이번 일로 다른 경기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된다. 다행히 우리 선수들은 지난 일은 깨끗이 잊고 개인전 연습은 물론 단체전 연습도 열심히 한다고 하니 안심이다. 역시 우리 선수들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우리 선수들은 많은 메달을 획득해서 매일같이 기쁨과 감동을 우리들에게 전해 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올림픽의 새로운 역사는 계속 될 것이다.

이 넘치는 힘과 기운을 받아 우리나라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지정 되기를 모든 국민과 함께 간절히 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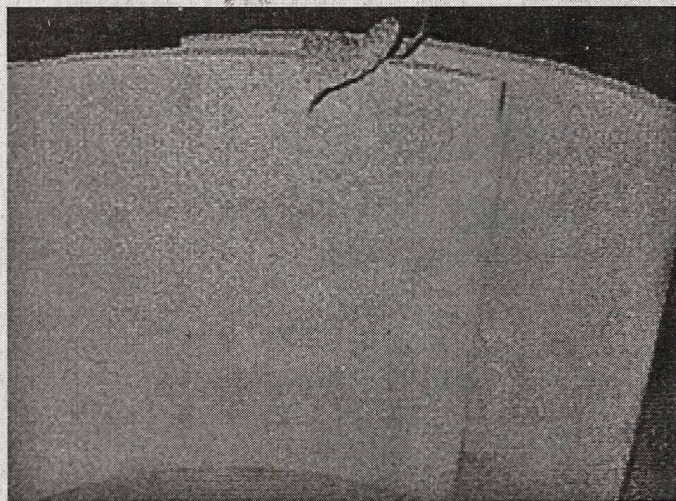
우리 선수들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박묘정

웰빙시대 우리집 건강지킴이 신비의 황토손

선조들의 생활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신비의 흙이 바로 황토입니다.

땅의 약 10%를 덮고 있는 황토는 다량의 탄산칼슘을 가지고 있다. 이성분은 황토를 잘 부서지지 않게 하는 점력을 가지며 이외에도 실리카 알루미나, 마그네슘, 철분, 나트륨, 칼라 등의 구성성분을 갖는데 이러한 성분비와 다양한 효소들로 조성된 황토는 동식물의 성장에 필수적인 원적외선을 다량 방출하므로 살아 있는 생명체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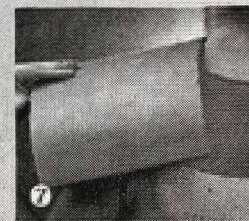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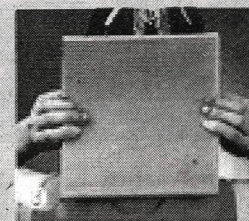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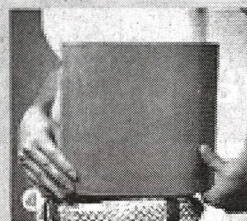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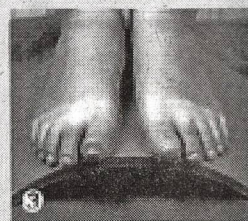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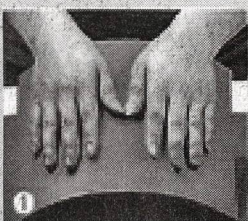


▶황토이야기

황토의 가장 근본적인 효능은 황토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이다. 황토에 열을 가하면 흙에서 내뿜는 복사열인 바이오 원적외선이 인체에 깊숙이 침투하여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 세균 작용을 약화시키고 혈액순환을 돕거나 세포생성을 촉진시킨다. 특히 황토는 중금속을 분리시키며 습도를 조절하고 전자파를 차단하며 항균, 방충, 생리활성, 제독력 등의 효능이 있어 노화방지나 건강에 효과가 있다. 황토를 축조된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부엌일을 하던 우리 옛어르신들에게 유방암, 자궁암 등이 없었던 것은 바로 이 황토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부인병을 예방하는 효능 때문이었으며, 이는 옛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본초강목과 향약집성방

중국과 우리나라의 한방 의학서인 본초강목과 향약집성방에는 복용간(황토)에 대해서 중요시 하고 있다. 복용간은 아궁이 속의 흙을 말하며 이는 부인의 어지러움이나 토혈, 중풍등의 치료제로 쓰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산해경에도 황토는 대체로 질병치료에 효험을 보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① 손의 혈액순환을 위해 황토손위에 올려놓은 모습 ② 변비가 심하신 분은 등근면을 배 안쪽으로 해서 대워주는 모습 ③ 무릎, 발의 피로를 풀기 위한 모습 의자에 걸터 앉거나 가볍게 올려 놓는다. ④ 옆구리 결림 등에 등근면을 사용하는 모습 ⑤ 무릎 등의 관절 부위에 사용한 모습 ⑥ 머리가 무겁거나 뒷 목줄기가 당길 때 사용한 모습 ⑦ 어깨가 결리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였을 때 사용모습 ⑧ 허리가 결리거나 당길때 사용모습(임치통 등)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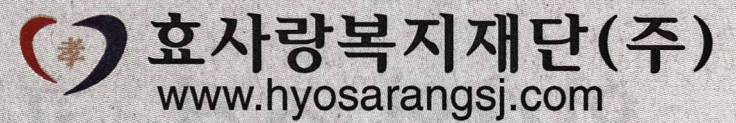
대구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612

김미성 보살

☎ 011-514-1094, (053)765-9588

대구 개천사 : 대구 중구 봉산동 230-12

☎ 053-425-7910



최고의 밀교 진언 의식으로 고인의 극락왕생 기원을 총지종 승직자와 효사랑복지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총지종 효사랑 390의 특징

1. 종교에 관계없이 가정의 모든 경, 조사에 사용가능 합니다.
2. 회원가입을 하시면 1구좌로 1회에 한하여, 모든행사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돌, 웨딩, 회갑, 칠순, 팔순, 상장례)
3. 가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며, 양도, 양수가 가능한 상조(相助)상품입니다.
4.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개인이 할 때보다 체계적이고
품격 높은 토탈행사 서비스로 감동을 연출합니다.
5. 회원님이 직접 선택한 상품, 1:1 맞춤서비스 상품입니다.
6. 각 행사의 전문가가 회원님의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연출, 관리하여 드립니다.
(웨딩스타일리스트/라이프플래너/상장례지도사/가례복지사 등)
7. 각 행사 전문가의 세심한 배려로 감동적인 이벤트 상품행사 서비스를 실현합니다.
8. 각 행사 이후 철저한 고객서비스를 통한 감동을 실현합니다.
9. 납입금액은 불교총지종에서 직접 관리하므로 안전합니다.
10. 매장시 지관, 이름 작명 필요시 자격증 소유자 보유(별도비용)
11. 전국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합니다.(TEL. 1600-4569)

총지종 효사랑 390의 행사절차(상장례서비스)

24시간 긴급상황접수 1600-4569



◀황금운모수의

상조(相助)란 무엇일까요?

옛 삼한시대로부터 농촌지역에서 대대로 이어져 오는 두레, 품앗이 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서로 돕는다는 뜻의 상부상조의 의미를 말합니다.
고객은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상조회원으로 가입하여 행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조회사가 모든 행사를 대행하는 미래보장형 회원제 상조상품입니다.



24시간 긴급상황접수

1600-4569

www.hyosarangs.com

NAVER

효사랑복지재단



월 3만원으로 경.조사를 품위있게

구 분 : 390만원

월불입액 : 3만원 (130회)

※1회차 부금 납입은 방문수금이 가능하며 약정한 계약 구좌에서 매월 결제일에 맞춰 CMS 자동이체로 출금처리됩니다.